

함께하는 FTA

February 2014 vol. 21



Coming Soon FTA: 호주, 캐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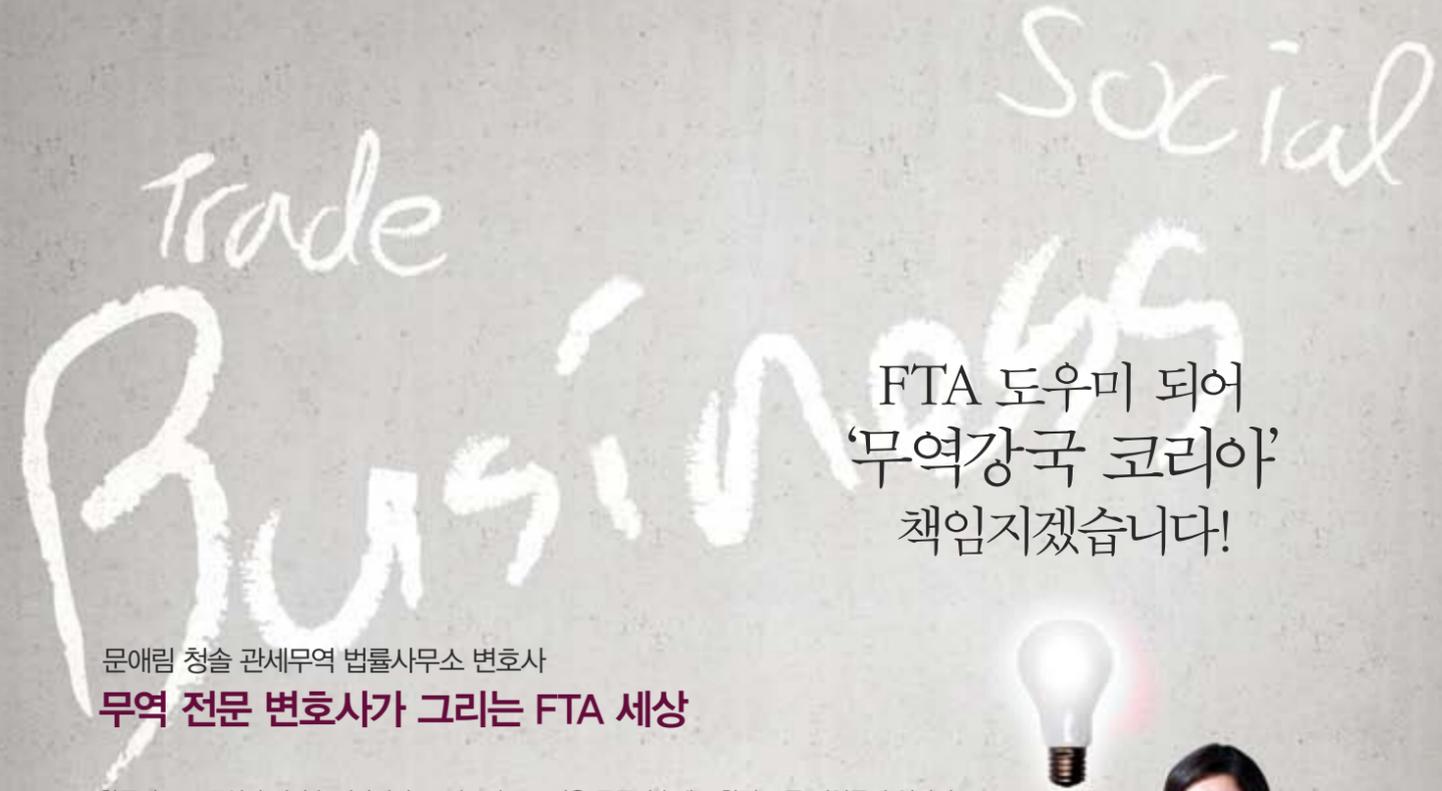
파워 인터뷰: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FTA 시대 농업 경쟁력을 말한다

FTA

생명

아무리 추위가 맹위를 떨치더라도
영원할 순 없습니다.
끝이 보일 것 같지 않던 찬바람도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지듯이,
아무리 불황이 기승을 부리더라도
영원할 순 없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도 흙속의 씨앗을
앗아가진 못합니다.
생명의 힘은 그만큼 세니까요.
봄볕에 싹을 틔우는 새싹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도
이제 기지개를 펼 때입니다.



FTA 도우미 되어
‘무역강국 코리아’
책임지겠습니다!

문애림 청솔 관세무역 법률사무소 변호사

무역 전문 변호사가 그리는 FTA 세상

한국의 FTA 무역이 점차 늘어나면서, FTA는 비단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누구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분야가 되어 가고 있다. 이에 발맞춰 다양한 영역에서 FTA 전문가들의 진출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문애림 변호사(31·청솔 관세무역 법률사무소)는 무역 및 FTA 전문 변호사의 길을 개척해가고 있는 중이다. 이제는 변호사의 수가 많아져 남들이 다 하는 영역에서 의미 없는 경쟁을 하기보다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싶었던 것. 도전정신이 남달랐던 문 변호사는 남들이 가지 않은 관세·무역 전문 변호사의 길을 택했다.

“한국이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나라가 성장하려면 결국 수출을 많이 해야 하고, FTA 경제영토도 점점 넓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결국 법률시장도 좁은 한국에서 경쟁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 비즈니스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이 미국·EU·아세안 등 주요 수출시장과 FTA를 발효하고 있는 가운데, 사후검증의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FTA 원산지증

명은 공급사슬에 포함된 모든 기업들이 연관되다 보니, 중간에서 사고가 생길 경우 법적인 문제로 커질 수도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변호사에게까지 갈 정도면 문제가 심각한 상황까지 간 경우다. “사실 저한테까지 안 오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하지만 기업이 궁지에 몰릴 때 기댈 데도 변호사죠. FTA 활용과 사후검증 대비는 미리미리 준비하면 되는데, 작은 기업들을 보면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단기적인 대응에 급급해 멀리 보고 가기 힘든 면이 있어요.”

사후적인 대응에도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지만, 사전적으로 계약 체결 시 계약서 자문 등 변호사가 할 일도 많다. FTA 활용과 관련해 원산지증명서 및 사후검증 정보 제공 시 기업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대비를 계약 때 해놓을 필요가 있다.

문 변호사는 “무역 업무든 FTA 활용이든 가장 최선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기업들에게 조언했다.☎

Coming Soon FTA

한·호주 FTA/한·캐나다 FTA



함께하는 FTA

- 발행일** 2014년 2월 14일(통권 21호)
-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문의 044-203-4131)
- 발행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제작협력** 한국경제매거진

〈함께하는 FTA〉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저자의 견해로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COVER STORY

겨울과 봄이 공존하는 2월입니다. 마을에는 아직 눈이 녹지 않았지만, 나무들 사이로 새순이 벌써부터 돋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새싹을 보며 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군요. 올해 우리나라도 10여 개의 FTA를 싹 틔우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랑실랑 느껴지는 불기운을 따라 우리나라의 FTA도 곧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겠지요?

표지일러스트 안우정



04

FTA People 01

문애림 변호사

Issue Focus 04

10주년 맞은 한·칠레 FTA
무역성과와 과제

06

한·인도 정상회담 성과와
한·인도 CEPA 5년차의 과제
조충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남아시아팀장

08

원산지확인서 관리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 개최

10

2013년 수출입 동향(확정치) 및
FTA 교역 현황



18

COVER STORY 12

한·호주 FTA의 현황과 과제
오수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4

연내 타결 가능성 높아진
한·캐나다 FTA
이혜연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

FTA Cartoon 15

수출 업무! 다~ 도와드립니다!
안종만

Leader's View 16

한·중 FTA 대비 농수산물의
경쟁력 강화 및 대중국 수출전략
손수석 경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Power Interview 18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FTA Lounge 20

자동차 정밀 사출성형 업체,
니프코 코리아



20

22

우리 회사 수출 1호:
오스카 화장품

24

양념치킨: 세계인의 입맛을
휘어잡은 선봉장

FTA Study 26

자유무역의 역사
②DDA란 무엇인가
이경희 신세계미래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28

세계의 FTA-①칠레
명진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

30

원산지관리 실무-원산지소명서
박종광 Ciel HS 대표/관세사

32

실전 품목분류 사례 분석
②해물파전
이민선 관세사



40

34

사후검증 따라잡기
②한·미 FTA의 원산지 검증 절차
강동구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사후검증지원실 관세사

Culture Prism 36

그(녀)가 내게 왔다
여태현 동덕여자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38

독자와의 만남:
원미슬 뮤지컬 음악감독

40

제주초콜릿박물관 탄생 히스토리

FTA News 42

TPP 참여국과 예비 양자협약의
실시 등

INDEX 44

FTA 용어 & 독자의 소리

10주년 맞은 한·칠레 FTA 무역 성과와 과제

'10년 철폐' 품목 추가 양하... 품목 수 95% 이상 무관세 교역

한국의 첫 FTA였던 한·칠레 FTA가 발효 이후 10년 동안 교역량이 4.5배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부터는 '10년 철폐' 품목의 관세가 추가로 철폐돼 양국 교역물품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돼 양국간 교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년 간 대칠레 교역량은 4.5배 늘면서 FTA 효과를 입증했다. 사진은 2004년 4월 1일 한·칠레 FTA 발효를 축하하기 위해 페르난도 슈미트 주한 칠레대사(앞줄 오른쪽 두번째)가 삼청각 가든에서 개최한 오찬에 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반기문 전 외교통상부장관 등이 참석한 모습.

한·칠레 FTA 발효 직전인 2003년 한국과 칠레와의 교역량은 15억7,491만 달러였으나, 10년 뒤인 2013년에는 4.5배 증가한 71억9,088만 달러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대(對)세계 교역량은 3,726억 달러에서 1조7,529억 달러로 2.9배 증가해, 한·칠레 FTA가 양국간 교역 증대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칠레 수출은 5억1,718억 달러(2003년)에서 24억6,147만 달러(2013년)로 4.8배, 수입은 10억5,772만 달러에서 46억5,761만 달러로 4.4배 증가해 수출입 모두 대세계 수출입 증가율을 훨씬 초과했다. 다만 무역수지 적자는 5억4,053만

달러에서 21억9,613만 달러로 4배 확대되었는데, 이는 대칠레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동광 및 동 일차제품의 국제가격이 10년 새 4배(kg당 1.78→7.06달러) 올라 수입액 증가(7억→33억 달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칠레 수출 절반 차지하는 자동차 수출 8배 늘어

품목별 수출은 2013년 기준 자동차가 포함된 기계류(60.9%)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화학공업(11.4%), 광산물(8%) 등의 순으로 수출했다. 이 중 자동차는 대칠레 수출의 52%를 차지하는데, 지난 10년 사이 자동차의 수출은 8배

증가해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품목별 수입은 동광 등의 광산물과 동 제품 등의 철강금속이 전체 수입의 78.2%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수산물(13.0%), 화학금속(8.6%) 순으로 수입했다.

우려했던 돼지고기·포도 수입, 국내 영향 거의 없어

특히 한·칠레 FTA 체결 당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우려됐던 돼지고기의 경우 FTA 발효 이후 10년 동안 중량기준으로는 2배(1만5,000톤→3만 톤), 금액기준으로는 3.4배(3,000만 달러→1억2,000만 달러) 증가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대세계 돼지고기 수입증가량인 중량기준 2.4배(12만2,000톤→29만3,000톤), 금액기준 4.4배(1억8,400만 달러→8억2,200만 달러)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대칠레 주요수입품인 포도는 FTA 발효 이후 중량기준 5배(9,000톤→4만7,000톤), 가격기준 10.6배(1400만 달러→1억4,400만 달러)로 증가했으나, 남반구에 위치한 칠레의 상이한 수확기 및 우리나라 비수기에만 관세를 인하는 계절관세(11~4월까지만 특혜관세 적용) 등으로 97% 이상이 우리나라 포도 수확 비수기인 1~5월 사이에 수입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올해 1월부터는 한·칠레 FTA 적용 11년째 해로 '10년 철폐' 품목의 관세가 추가로 철폐돼 양국 교역물품 대부분의 관세가 0%로 전환되어 교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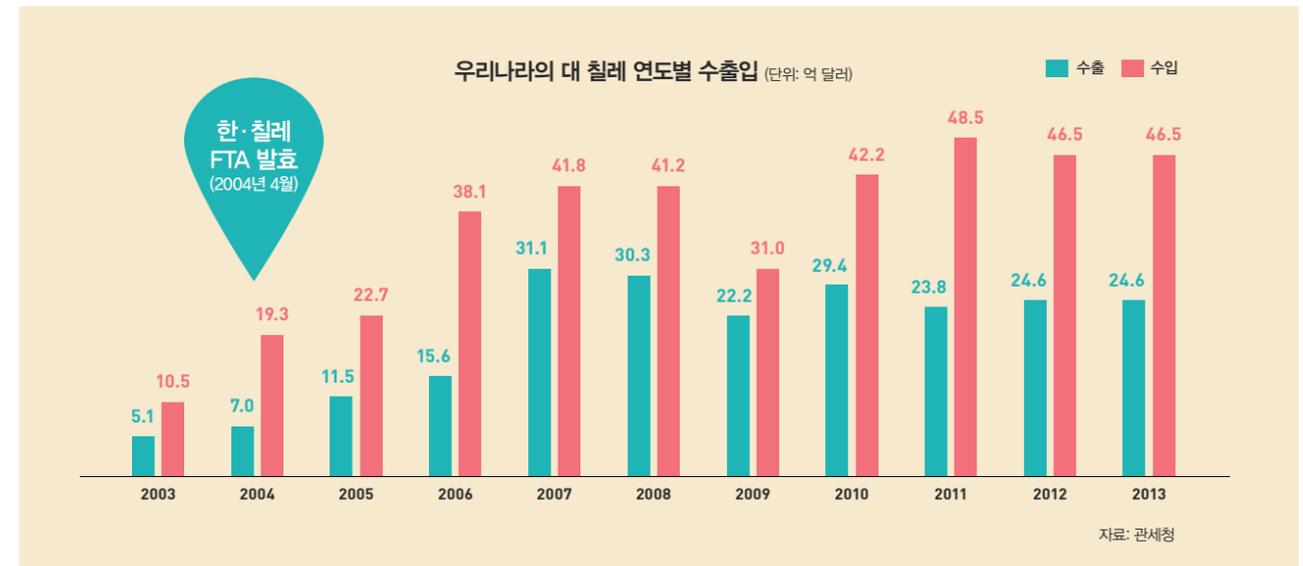
올해 주요 관세인하 품목

품명	우리측			칠레측			
	일반세율	FTA 세율		품명	일반세율	FTA 세율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삼겹살	25%	2.4%	0%	승용차	6%	3.0%	2.25%
냉동과실	30%	2.7%	0%	진공청소기	6%	0.5%	0%
키위	45%	4.1%	0%	타이어(산업용)	6%	3.0%	2.25%
냉동 홍어	10%	3.2%	0%	축전지	6%	0.5%	0%
사과 주스	45%	4.1%	0%	평판압연	6%	3.0%	2.25%

자료: 관세청

예상된다. 우리 측은 돼지고기, 키위 등 농축수산물 473개의 관세가 추가로 철폐 돼 품목수 기준 96.5%가 무관세 적용되고, 칠레측은 청소기, 축전지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 1445개 품목을 추가로 관세철폐 해 전체의 95.1% 품목이 무관세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앞으로 자동차에 편중된 대칠레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고, 대세계 수출비중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전자 제품의 수출 비중(대세계 32.2%, 대칠레 7.9%)을 늘려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칠레가 일본, 중국 등에는 양허했으나, 한국에는 양허하지 않은 세탁기, 냉장고 등에 대해 추가협상을 통해 관세양허를 추가함으로써 FTA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인도 정상회담 성과와 한·인도 CEPA 발효 5년차의 과제

진전 없던 CEPA 개선, 정상회의로 급물살

2014년 새해 벽두부터 한·인도 간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1월 16일 인도 델리에서 개최된 한·인도 정상회담 성과가 예상보다 훨씬 큰 것이었다. 특히 경제협력 분야 성과는 기대 이상이였다. 먼저 현재 발효 중인 한·인도 CEPA의 조기 개선에 양국 정상이 합의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개선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것이 공동성명에 명기되었다.



지저부진하던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은 올해 1월 16일 열린 한·인도 정상회담(사진)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10년 1월 1일 발효된 한·인도 CEPA가 4년째를 맞고 있다.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상품교역은 물론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 특히 인도측이 선호했다. 한·인도 CEPA는 우리로서는 BRICs(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와, 인도로서는 OECD 국가와 각각 처음으로 맺은 FTA였다. 특히 우리는 거대 신흥국에 대한 FTA 선점효과를 그 어느 FTA보다 많이 기대했었다. 그리고 발효 이듬해인 2011년 1월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에서 CEPA 개선(업그레이드)이 양국 간에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합의되었다. 그러나 막상 CEPA 개선을 위한 협상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몇 차례 실무협상이 있었지만 거의 진전이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5월말 이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CEPA 개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는 듯 했다. 인도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 경상수지 적자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연간 약 50억 달러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누리고 있는 우리 또한 인도를 협상 테이블로 유인할 명분이 약했다. 정상회담 직전까지 CEPA 개선에 인도측이 난색을 표현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합의는 정상회담의 효과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도 또 하나의 진전

이번 정상회담의 또 다른 성과는 지난 1986년 제정된 이

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개정 없이 유지되어 온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이 전격적으로 합의된 것이다. 그동안 인도는 1991년 개혁개방정책이라는 전대미문의 획기적인 정책 변화를 시도하여 거대 신흥국으로 부상했으며, 당시 약 7억 달러 정도에 불과했던 양국 간 교역규모가 200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날 정도로 양국 관계는 긴밀해졌다. 이러한 급변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개정 협상이 시작되었지만 진전이 없었다. 거의 9년에 걸쳐 협상이 진행됐지만 타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러던 것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극적으로 타결된 것이다. 현재 가시명 개정안에 따르면 이자 및 사용자 소득세율은 5%p 인하되고, 해운소득은 100% 면세된다. 또한 이전가격 관련 불합리한 과세가 있을 경우 양국 세무당국 간 상호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세(稅)부담 경감으로 양국 진출기업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기업 활동 또한 증가할 것이다.

한·인도 정상회담 직전에는 포스코 오디샤 프로젝트의 환경인허가가 갱신되었다. 1차 사업 부지확보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환경인허가가 갑자기 갱신된 것은 정상회담의 영향력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05년 120억 달러 규모의 일관 제철소 건설을 위해 포스코와 오디샤 주정부 부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어 애만 태우던 사업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포스코 프로젝트는 개별 기업의 투자를 넘어선 보다 특별한 의의가 있다. 바로 우리나라 대인도 투자의 새로운 모멘텀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대인도 투자 국가별 순위에서 5위를 차지하던 우리나라는 최근 13위로 밀려나 있고, 대신 일본이 4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규모는 일본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그 격차가 최근 들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이 포스코의 오디샤 프로젝트이다. 포스코의 투자규모도 대형이지만 관련된 수많은 협력사와 연관 회사들의 인도 진출을 감안하면 이것보다 확실하게 투자진출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특히 동부 지역은 인도에서도 자원과 인력이 매우 풍부한 신흥지역이다. 일본 기업들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출은 전무하다.

이밖에 양국 간 중장기 경제협력 로드맵 공동 작성, 원자력 협력 확대, 우리나라 관광객에 대한 인도 측의 도착비자



한·인도 CEPA 일지

2003년 12월	한·인도 외무장관 회담에서 공동연구그룹 설치 검토기로 합의
2005년 1~10월	제1~4차 한·인도 JSG(공동연구그룹: Joint Study Group) 회의
2006년 1월	제5차 한·인도 JSG 회의 및 공동연구 보고서 채택
2006년 2월	양국 정상회담서 CEPA 협상 개시 공식 선언
2006년 3~10월	제1~4차 공식협상
2007년 1~12월	제5~9차 공식협상
2008년 5~9월	제10~12차 공식협상. 실질적 타결
2009년 2월	가시명
2009년 8월	공식 서명(서울)
2009년 11월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0년 1월	한·인도 CEPA 발효
2011년 1월	제1차 공동위원회 개최(뉴델리)
2011년 9월	제2차 국장급 공동위원회 개최(서울)

허용, 항공편 증설 등도 이번 정상회담의 경제협력 분야 성과들이다.

한국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때

정상회담 합의 및 성명을 통해 경제협력의 여러 분야에서 추동력을 확보한 만큼 이제부터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이 과제다. 양국 해당 부처 간 보다 구체적인 협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그런데 인도 총선이 올해 4~5월에 있어, 이미 인도의 장관들의 마음은 유권자들의 표심에 가 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인도에서 장관은 물론 총리도 국회의원이자, 더구나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예측이 어려운 치열한 접전이 될 전망이다. 총선 전후 행정공백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공산이 크다. 자칫 타이밍을 놓치면 올해 안에 정상회담 합의사항들을 실천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우리 측이 먼저 준비하고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협의를 적극 요청해야 한다.

특히 한·인도 CEPA는 정상회담 성명서에 담긴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CEPA 개선을 위한 실무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도 보다 유연해져야 한다. 인도 측에서 민감해하는 무역수지 불균형을 서비스 수지 및 자본 수지 측면에서 보전하는, 즉 IT 서비스 수입 확대, 대인도 투자 및 인프라 개발 참여 확대 등을 제시하면서 양허품목의 확대 및 관세인하 가속화 등을 요구하는 식의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

원산지확인서 관리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 개최

28개사 선정...향후 우수기업 발굴 확대

수출업체가 '원산지증명서'를 원활하게 발급하려면 국내 원재료·부품 공급사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확보해야만 가능하다. 즉, 우리나라의 FTA 활용률을 더 높이려면, 수출품 생산 네트워크의 모든 기업들이 FTA 활용 업무에 적극 나서야만 하는 것이다. 민간 차원에서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와 섬유산업연합회는 협력업체가 원산지확인서 발급·관리를 부담 요인이 아니라 기회 요인으로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원산지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해 나가고 있다.



지난 1월 14일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권오현)와 섬유산업연합회(회장 노희찬)는 산업통상자원부 후원 하에 FTA원산지확인서 관리 역량이 우수한 기업에 '원산지확인서 관리 우수기업 인증서'를 수여했다.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금오산업 등 15개사, 섬유산업연합회는 광일섬유 등 13개사, 총 28개사를 선정했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축하에서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원산지 관리 역량도 점차 기업의 경쟁력으로 평가되어 신뢰도 제고, 매출증대 등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원산지확인서 관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이 여타 업종별 단체로도 확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서 수여식에는 중소기업청, KOTRA(코트라),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도 참석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사업을 소개(15페이지 참고)하고, 인증서를 받은 기업들이 수출에 관심이 있는 경우, 수출기업화 지원 사업 선정 시 우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향후 정부는 원산지확인서 관리 우수기업에 대해 FTA 선도기업 육성사업, 각종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 사업 수행 시 우대하는 등 업종별 협단체의 원산지확인서 관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기업 명단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15개사)

금오산업(철합)
우일씨애펙(WET TISSUES)
영화금속(CAP-CRANKSHAFT BRG)
삼경전기(PAN ASSY-OIL)
세진전자주식회사(COVER SW)
영신정공(L/VALVE FORGING)
오리엔스금속(SCR-CRANKSHAFT BRG CAP MTG)
구산(COUPPING SIDE ENGINE)
동대금속(WASHER-SPRING)
동선산업전자(CLOCK ASSY-DIGITAL)
세종테크(M5 PUSH NUT)
아성프라텍광주공장(COVER ASSY-CONSOLE UPR)
일신프라스틱(RETN ASSY-BPR COVER MTG)
장암칼스부산사무소(GREASE(SG-P))
제이아이코리아(PAD-C/PAD MAIN)

※괄호 안은 품목명.

섬유산업연합회(13개사)

삼용화섬(직물)
호정산업(부직포)
광일섬유(편직물)
케이씨(양말)
삼일염직(면직물 염색)
서진텍스타일(화섬직물)
문화직물(경편직물)
앤디아(면직물·화섬직물 염색)
개미살업(니트스웨터, 머플러, 모자)
다다씨앤씨(니트류, 모자)
성진(부직포)
팬더컴퍼니(여성용 자켓, 스커트, 드레스)
금비살업(여성용 자켓, 스커트, 드레스)

※괄호 안은 생산품의 중분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우수기업 탐방-우일씨애펙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철저한 생산환경 관리... FTA 활용 업무도 마찬가지

경기도 평택 포승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우일씨애펙 본사의 생산현장. 하얀색의 방진복·위생모자·마스크·위생장갑·장화로 공공 싸맨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다. 이렇게 철저한 방진·방균 시설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다름 아닌 물티슈다. 별 것 아닌 듯 보이는 물티슈도 이렇게 철저한 관리 하에서 이뤄지는 것처럼, 우일씨애펙의 FTA 원산지 관리 업무도 철두철미하게 이뤄지고 있다.



"작은 공장이지만, 화장실 하나만 해도 수도 없이 뜯어고쳤습니다." 김용준 대표이사(63·사진)는 일과 관련해서 허술하게 넘어가는 것을 싫어한다. "제조업 현장에서는 수많은 재료를 참고에 쌓아 놓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재료를 꺼내가면서 하나씩 건드리다 보면 나중에는 뒤죽박죽이 돼요. 하나를 꺼내기도 똑바로 해 놓고 가져가자는 거죠." 김 대표가 이렇게 생산환경을 철저하게 챙기는 것은 일찍부터 글로벌 스탠다드에 눈 뚫기 때문이다.

국내 유명 건설사에 다니며 1980년대 중동 특수 때 사우디아라비아 토목공사 현장을 누비기도 한 김 대표는 1990년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나이 마흔에 일터를 떠나야 했다. 갑작스런 퇴직에 아무런 준비조차 없었던 김 대표가 새롭게 시작한 것은 소규모 무역상인 '우일통상'이었다. "처음에는 일본의 물티슈, 젯병 등 유아용품을 수입해 파는 일을 하는 '보따리상'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에 물티슈 시장이란 게 없었거든요." 1992년에는 지금은 사라진 쌍용제지의 주문을 받아 물티슈 생산도 시작했다.

기회는 1997년 IMF 때 왔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금을 받았던 업체들이 하나둘씩 쓰러지면서, 우일통상이 자금지원 대상이 된 것. "학연·지연 같은 게 없었거든요. 돈 빌려 쓸 줄도 모르면 때였습니다. 그런데 부채가 없었던 것이 기회가 된 거죠." 1억 6,000만 원을 빌려 일본에서 물티슈 생산에 필요한 접지기를 사 왔다. 국내 최초였다. 이전까지 국내 물티슈는 원통형이었는데, 처음으로 폴딩형이 나온 것이다. 이게 소문이 나면서 LG생활건강에서 연락이 와서 OEM(주문자상표제작) 생산을 시작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인 QA(Quality Assurance) 개념은 쌍용제지를 인수한 P&G 덕에 알게 됐다. 위생용품인 물티슈의 세균·이물질·화학물질 등의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생산공정을 도입하지 않고서는 납품을 할 수 없었던 것. 첫 심사 때 마이너스 점수를 받아 '이래선 안 되겠다. 글로벌 기업을 상대하려면 변해야 한다'는 결심을 한 김 대표는 품질관리를 담당할 인력과 시설을 보강해 세 번째 심사에서 마침내 합격선을 통과할 수 있었다. P&G로

부터 QA 합격을 받은 것도 국내 최초였다. 물티슈 팩에 플라스틱 캡을 단 것도 우일씨애펙이 처음이다. 그 덕에 2003년부터는 유한킴벌리의 OEM을 시작했다.

시설과 관리를 글로벌 수준으로 맞춰놓자 그 밖의 인증들은 저절로 따라왔다. 미국 FDA(식품의약국)이 요구하는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ISO9001&ISO14001 등도 특별히 준비할 것이 없이 획득할 수 있었다.

FTA 업무도 특별히 할 게 없었다. 일찍부터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을 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김 대표는 "우리 회사가 이만큼 온 것도 다 남보다 한 발 먼저 했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비결을 설명했다. 우일씨애펙은 FTA 발효국으로는 현재 유한킴벌리를 통해 싱가포르, 필리핀 등으로 물티슈(HS코드 3307.90&3401.19)를 간접수출하고 있고, 미국으로 클렌징티슈(HS코드 4818.20)와 아이패드(eye pad, HS코드 4818.20)를 직수출하고 있다.

2013년 수출입 동향 및 FTA 교역 현황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 FTA 교역 비중은 증가

관세청이 1월 14일 공개한 '2013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글로벌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1조752억 달러)를 유지했다. 중국, 미국 등 한국의 주력시장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한 결과다. FTA 교역 비중은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철광석 채굴 모습

COVER STORY

Coming Soon FTA

한·호주 FTA/한·캐나다 F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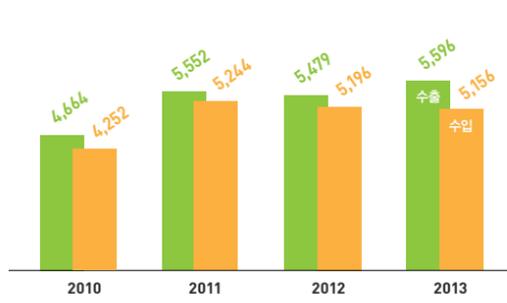
영연방 국가에 속하는 호주와 캐나다는 철광석(호주), 유연탄(캐나다) 등 에너지자원을 한국으로 수출하고, 한국은 자동차, 가전제품 등을 수출하고 있어 상호보완적인 무역구조를 갖고 있다. 지난해 말 호주와의 FTA 협상이 타결된 데 이어 캐나다와도 조속한 협상 타결 의지를 확인한 바 있어, 두 나라와의 FTA는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섰다.

캐나다의 밀 수확 모습

2013년 우리나라의 수출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5,596억 달러를 기록했다. 유럽 재정위기 및 아세안 국가의 성장 둔화로 EU(-1.1%, 이하 전년 대비 증가율), 동남아(-0.9%), 일본(-10.6%) 등으로의 수출이 감소했으나, 중국(8.6%), 미국(6.0%), 호주(3.4%)로의 수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중국과 미국은 한국의 1, 2위 수출 대상국이다. 품목별로는 액정디바이스(-8.5%), 철강제품(-7.5%), 석유제품(-6.0%), 선박(-5.4%) 등은 수출이 감소했으나, 반도체(13.5%), 무선통신기기(11.1%), 화공품(8.1%), 자동차부품(6.0%) 등은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수입은 전년 대비 0.8% 감소한 5,156억 달러였다. 자본재(2.8%) 및 소비재(7.5%)는 증가한 반면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한 원자재(-3.7%) 수입은 감소한 결과다. 원자재 품목은 가스(7.4%), 목재(12.6%) 등의 수입은 증가했으나,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원유(-8.3%), 석탄(-18.6%)·고

우리나라 수출입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관세청

무(-13%) 등은 감소해 3,131억 달러(-3.7%)를 수입했다. 수입비중의 19.3%를 차지하는 원유는 전년 대비 도입단가(-3.6%) 및 도입물량(-4.8%) 감소의 영향을 받았다. 자본재의 경우 기계류(10.7%), 반도체(7.6%) 등의 수입이 증가해 전년 대비 2.8% 증가한 1,442억 달러를 수입했다. 소비재의 경우 승용차(22.0%), 의류(20.1%), 쇠고기(10.8%) 등은 증가했고, 주류(-0.7%), 돼지고기(-27.3%) 등은 감소해 전년 대비 7.5% 증가한 582억 달러를 수입했다.

지역별 수입액은 중국(2.8%), EU(11.6%), 동남아(2.7%)는 증가한 반면, 미국(-4.2%), 일본(-6.8%), 호주(-9.7%), 중동(-1.2%), 중남미(-6.8%), CIS(-2.0%) 등은 감소했다.

한편 FTA 체결국과의 교역액 비중은 34.8%(2012년)에서 35.4%(2013년)로 확대됐다.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은 2,106억 달러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고, 수입은 1,703억 달러로 2.2% 증가했다. 수출과 수입 모두 대세계 증가율보다 높이나 FTA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2013년 FTA 체결국별 교역 현황

구분	수출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교역액	교역비중*
EU	489	-1.1%	562	11.6%	1,051	9.8%
미국	621	6.0%	415	-4.2%	1,036	9.6%
아세안**	597	6.2%	430	1.6%	1,027	9.5%
싱가포르	223	-2.7%	104	7.1%	326	3.0%
인도	114	-4.5%	62	-10.7%	176	1.6%
칠레	25	-0.3%	47	-0.4%	71	0.7%
EFTA	24	63.3%	64	-16.9%	88	0.8%
페루	14	-2.2%	20	21.0%	34	0.3%
합계	2,106	3.0%	1,703	2.2%	3,809	35.4%

*2013년 전체 교역액(1조752억 달러) 대비 비중
**싱가포르는 아세안 국가에서 미계상(별도 계상)

(단위: 억 달러,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COVER STORY 01

한·호주 FTA의 현황과 과제

제조업 수출 및 안정적 자원 수입... '일석이조' 효과 기대

지난 2013년 12월 5일 발리에서 열린 한·호주 통상장관회담 및 7차 FTA 협상 결과, 한·호주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한·호주 FTA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로 상품, 투자, 서비스, 원산지, 무역구제, TBT,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번 한·호주 FTA의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제조업 상품 수출을 확대함과 동시에 호주의 에너지 자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협상 타결된 한·호주 FTA는 올 상반기 협정문 가서명을 추진하고, 정식 서명 및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호주 통상장관 회담에 함께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앤드루 루프 호주 통상·투자장관.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출 시장을 확보하고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 경제에 유리한 국가를 협상 상대국으로 선정해 FTA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교역량 기준으로 호주는 한국의 제7위 교역국이며, 한국은 호주의 제4위 교역국이다. 호주는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동시에 그 교역구조가 상호 보완적이어서 주요한 FTA 상대국으로 손꼽혀 왔다. 특히 호주가 1차 산업 및 원자재, 에너지 자원 분야에 비교 우위를 가지는 한편, 우리나라는 제조업 상품에 비교 우위를 가짐으로써, 시장 개방으로 인한 이익이 양국에 모두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민간공동연구 결과에서도, 한·호주 FTA가 체결될 경우 향후 10년간 한국의 GDP는 최대 296억 달러, 호주의 GDP는 최대 227억 달러가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한국의 승용차·자동차부품 수출 확대 기대

한·호주 FTA는 2009년 제1차 FTA 공식 협상을 시작으로, 2013년 12월 초 제7차 FTA 공식 협상 및 한·호주 통상장관 회담을 거쳐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2010년 제5차 FTA 협상 과정에서 쇠고기, 낙농품 및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의 포함 여부와 같은 주요 쟁점에 대해 우리나라와 호주 간 입장 차이가 있었고, 이로 인해 협상은 한동안 공전 상태에 있었다. 이처럼

한동안 협상이 중단되었다가, 호주 측이 일본, 중국, 우리나라와 양자 FTA를 조속히 마무리 짓기를 희망하면서 협상이 빠르게 전개되었다. 현재는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된 상태로, 향후 법률 검토 작업, 서명 및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남아있다. 일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 및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한 이후, 한·호주 FTA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을 올해 상반기에 추진하고, 한글본 번역 작업을 거쳐 정식 서명 및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한·호주 FTA에서는 수입액을 기준으로 호주 수입액의 92.49%에 부과되는 관세를 8년 이내에 철폐하고, 호주 측은 거의 모든 한국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 내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호주에 대한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 경유, 휘발유, 자동차 부품 및 가전제품으로 특히, 5~10%에 이르던 20개 세번의 승용차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자동차 부품 관세 또한 3년 내에 철폐할 것을 합의함에 따라 이들 제품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호주는 한국 광물자원 수입액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요 수입대상국이므로 관세율 인하폭은 크지 않지만, 이번 FTA를 통해 호주의 자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호주는 중남미 혹은 아프리카 국가 등 다른 자원부국과 달리 비교적 정치적 안정성과 경제적 투명성을 지녀, 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캐나다·뉴질랜드 등 영연방 FTA 협상 가속화

이번 한·호주 FTA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로 상품, 투자 및 서비스, 원산지, 무역구제, TBT,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한국과 호주 양국은 한·미 FTA, 호·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했으며, 투자 분야에서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수용시 보

상의무, 송금 보장 등의 투자보호 규범을 규정했다.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서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 조항을 도입하였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기술상 무역 장벽을 말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표준·기술규정 등의 분야에서 협력강화와 TBT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코디네이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WTO 지적재산권 수준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밖에도 이번 협상에서는 문화협력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기대효과와 동시에 호주산 쇠고기 및 농산물의 수입이 증가해 국내 축산농가가 입을 피해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호주산 농축산물의 경우, 청정지역 이미지가 있어 수입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산물 셰이프가드, 계절관세와 같은 다양한 수단을 확보하고, 쇠고기의 경우 관세철폐 기간을 15년으로 하였으며, 쌀, 분유, 과일, 대두, 감자 등 주요 민감 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호주 FTA가 타결됨에 따라 교착상태에 있던 다른 영연방 국가(뉴질랜드, 캐나다)와의 FTA 추진 또한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제12차 한·캐나다 FTA가 지난해 11월말에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뉴질랜드와도 2월 중 그동안 중단되었던 협상이 재개될 예정이다. 이들 영연방 3개국은 우리나라와 개별 FTA를 협상하고 있는 국가인 동시에 모두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국으로, FTA 협상과 동시에 이들 국가와의 TPP 예비양자협정의 또한 진행 중이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FTA와 TPP 예비양자협정의 같은 시점에 진행되는 것을 이용하여 우리의 협상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한 때다.☞

한·호주 FTA 일지

- 2006년 12월: 호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FTA 타당성 조사를 위한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
- 2007년 7, 8, 10월: 민간공동연구 회의 개최
- 2008년 4월: 민간공동연구보고서 완료, 라운드테이블회의 개최(서울)
- 2008년 8월: 호주 총리 방한 중 FTA 예비협의 개최 합의
- 2008년 10월: 민간공동연구 회의 개최, 제1차 한·호주 FTA 예비협의(서울)
- 2008년 12월: 제2차 예비협의(화상회의)
- 2009년 1월: 한·호주 FTA 및 한·뉴질랜드 FTA 공청회 개최
- 2009년 3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 공식개시 합의
- 2009년 4월: 사전준비회의 개최
- 2009년 5월: 제1차 협상 개최(캔버라)
- 2009년 8월: 제2차 협상 개최(서울)
- 2009년 11월: 제3차 협상 개최(캔버라)
- 2010년 3월: 제4차 협상 개최(서울)
- 2010년 5월: 제5차 협상 개최(캔버라)
- 2013년 11월: 제6차 협상 개최(서울)
- 2013년 12월: 제7차 협상 개최(발리), 한·호주 FTA 협상 실질적 타결

연내 타결 가능성 높아진 한·캐나다 FTA

캐나다로 수출 절반이 자동차...점유율 높일 기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하던 한국과 캐나다 간 FTA 협상의 연내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캐나다 FTA 협상은 2005년 7월 개시되어 2008년 3월까지 총 13차례 개최되었으나, 한국의 캐나다산 쇠고기에 부과한 수입 제한 조치를 캐나다가 WTO에 제소하며 협상이 잠정 중단되었다. 이후 양자 협의 결과, 2012년 1월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어 지난해 말부터 협상을 다시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WTO 각료 회의 중 양국의 통상장관이 한·캐나다 FTA의 조속한 협상 타결 의지를 확인함으로써 장기간 지연되던 한·캐나다 FTA는 협상 타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COVER STORY 02

한국은 자동차, 캐나다는 쇠고기 개방에 관심

캐나다는 GDP 규모 세계 11위의 경제대국(2012년 기준)이며 구매력 기준 1인당 GNI(국민총소득)가 4만 달러에 달하는 시장으로서 높은 가치가 있다. 이러한 캐나다 시장에 대한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승용차(수출금액 기준 42.8%), 휴대폰(12.7%), 자동차 부품(4.5%) 등 공산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유연탄(33.6%), 펄프(6.2%), 쇠고기 및 돼지고기(1.9%), 곡류(1.5%) 등 1차 산품의 비중이 높아 양국의 무역구조는 상호보완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자동차 및 부품시장에서 현재 최고 6.1%에 달하는 관세(승용차 6.1%, 자동차 부품 0~6.1%)를 철폐하는 데 큰 관심을 두고 있다. 한편 캐나다는 현재 40% 수준인 쇠고기 관세의 철폐 및 기타 농축수산물에 대한 시장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양국은 서로에 대해 이미 발효된 한·미 FTA 양허수준만큼 개방할 것을 기대하고 있어 양보를 얻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러 국가들이 캐나다 시장을 두고 경쟁하는 가운데 일본은 이미 캐나다 시장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일본은 2012년 말

2008년 3월 이후 중단되었던 한·캐나다 FTA 협상은 지난해 12월 발리 WTO 각료회의에서 양국이 협상 조속 타결 의지를 확인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진은 2007년 11월 26일 서울에서 열린 제12차 한·캐나다 FTA 협상 직후 모습.

캐나다와의 FTA 협상을 개시했고, 최근에는 일·캐나다 FTA와 TPP를 병행 추진하면서 캐나다 시장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자동차, 자동차 부품, 휴대폰, 타이어 등 캐나다 시장에 대한 주요 수출품목이 우리나라와 유사해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한·캐나다 FTA의 조속한 타결 및 발효를 통해 시장에서의 선점효과를 노려볼 만하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현행관세율 6.1%가 철폐되면 높은 우리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시장점유율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시장에서의 성공은 단순한 판매량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수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캐나다·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은 가격, 품질,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우수성을 인정받는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따라서 자동차 업계는 캐나다와의 FTA를 통해 북미 시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한·캐나다 FTA는 한·미 FTA와 함께 북미시장 제패에 기여하리라는 점에서 기대가 더욱 크다.☺

수출 업무! 다~ 도와드립니다!

안중만



·한국무역협회: 수출 스타트업 02-6000-5448, startup@kita.net 이메일 신청
·KOTRA: 수출 첫걸음 02-3460-7565/7563, ExportGateway@kotra.or.kr 이메일 신청
·중소기업청: 수출역량강화사업 www.exportcenter.go.kr 인터넷 신청



글 손수석 경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한·중 FTA 대비 농수산물의 경쟁력 강화 및 대중국 수출전략

중국 신(新)중산층 한류식품 수요 급증, 청정·유기농·고급화로 대응해야



일러스트 전희성

한·EU 및 한·미 FTA가 발효된 데 이어 한·중 FTA 협상이 진행되는 등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로 인한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어 우리 농수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한·중 FTA 1단계 협상 결과에 의하면, 동식물검역조치의 현행유지 가능성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개방에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또, 한·중 양국은 품목수 기준 10%, 수입액 기준 15%에 해당하는 품목들을 초민감품목에 포함하도록 합의해, 협상 결과에 따라 국내의 대부분 농수산물은 초민감품목에 포함하여 관세 양허제외(개방 불가), 부분철폐, TRQ(저율관세할당), 계절관세 등으로 부분 개방할 수 있어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2단계 협상에서는 양국이 어떤 품목들을 초민감품목에 포함시키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농수산물은 가격경쟁력이 높고,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품목도 우리와 비슷해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수입확대를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농수산물의 경우 중국이 절대적 우위에 있으나 신선육과 신선채소류는 동식물검역조치로 인해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다른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대중국 수입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한·중 FTA의 농수산 분야 협상에서 중국 측의 핵심적 관심분야는 당연히 동식물검역조치(SPS) 해제, '지역화' 및 관세철폐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전개될 2단계 협상에서 만일 이 어느 하나라도 중국 측의 주장이나 요청이 관철될 경우 우리 농수산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농수산물을 초민감품목에 포함하는 것만으로는 한·중 FTA로 인한 우려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현

재 동물검역조치로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돼지고기와 쇠고기 의 경우, 장기적으로 검역상의 수입규제가 풀릴 경우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쇠고기와 돼지고기도 중국 내 청정지역 수출단지 조성 등을 통한 수입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진행될 2단계 협상에서는 현재 중국이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동식물검역조치 해제 및 청정 신선채소와 육류에 대한 '지역화' 요구에 대해 WTO/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해 반드시 현재 상태를 유지하여야 관련 국내산업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농수산품목을 민감품목이나 초민감 품목에 포함시켜 관세 양허를 제외하거나 관세철폐 유예기간을 최대한 연장하는 것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대한 막을 수 있다.

수출경쟁력·성장가능성 높은 품목 집중 육성해야

이러한 환경 하에서 우리 농수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출경쟁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전략적인 품목들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산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품종개발, 재배기술, 규모화, 시설현대화, 생력화, 수확 후 관리기술, 소비자 지향형 마케팅 전략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정부, 유관기관 및 농민들이 협력하여 지역별 명품 브랜드를 만들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시장과도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 신선도 유지 등 품질 경쟁력 제고를 통한 명품 브랜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필요성과 함께,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친환경농업, 생태농업, 생명산업이 부각되고 있으며, 디지털 혁명에 의한 농업기술 발전, 웰빙·웰니스·로하스 바람에 의한 식품 소비 증대, 도농교류와 귀농·귀촌의 사회적 관심 증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공동체에 관한 관심 부각 등이 우리농업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최근 들어 우리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즉, 최근에 중국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를 찾는 신중산층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류의 영향이 맞물리면서 우수한 품질과 합리적 가격을 지닌 한국산 농산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대중국 수출이 많았던 인삼 등에 이어 유자차, 밤, 오징어, 음료수 등이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게다가 최근 한류드라마 상영과 잇따른 먹거리 파동 이후, 우유, 분유, 비스킷, 빵(유기농 원료의 영유아용 포함), 김 등 '신 한류 식품'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2 농식품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28%에 이르고 있어, 2020년 이후에는 제1위의 농식품 수출 대상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중산층 증가와 한류는 한국에 기회

이러한 중국의 최근 트렌드를 우리의 기회요인으로 삼기 위해서는, 밸류컨슈머(좋은 제품을 합리적 가격에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 또는 신(新)중산층으로 대변되는 중국 신중산층의 감성과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식품개발 및 수출활로 개척에 만반이 더욱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향후, 한·중 FTA가 체결되면 우리 농수산물의 대중국 수출에도 기회요인이 되어, 우리나라 프리미엄 농수산물의 중국 수출 활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중국의 최근 소비트렌드와 한·중 FTA를 기회로 삼아, 중국에 대한 국산 농수산물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①중국 시장의 특수성에 대한 보다 충분하고 면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접근, ②중국사회의 공식적인 제도와 법령은 물론 비공식적인 관행과 규제의 배경과 실태에 대한 면밀한 파악, ③중국 사회의 핵심계층인 당 및 관료사회와 유대관계 강화는 물론 보다 많은 도시들과 자매결연 등을 통해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초기 투자, ④중국 내 신중산층 내지는 고소득 계층을 신선 및 가공농산물의 목표시장으로 삼아 품질 및 안전성 제고와 기능성 확충 등 다양한 전략 수립, 그리고 ⑤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중국내 소비자 신뢰를 확산하기 위한 전략과 이를 위한 지속적인 품질 제고와 신제품 개발을 위한 산·관·학 공동 시장조사 및 연구개발 투자 지원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이 밖에도 중국 소비자들의 고급화 선호 취향을 감안하여 광고와 마케팅 전략을 대대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정 환경에서 생산되는 최고 품질의 유기농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 농수산물의 고급화 이미지를 구축하는 마케팅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국 내 유통망을 확충해 소비자들이 우리 농수산물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야 한다. 이미 중국에 진출한 한국 유통업체의 중국 내 점포망을 활용하는 동시에 중국의 고급 백화점 등 유통회사와 제휴하여 우리 농수산물과 식품에 대한 고소득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중국은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2 농식품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28%에 이르고 있어, 2020년 이후에는 제1위의 농식품 수출 대상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국제 통상환경 급변... 능동적 대응은 필수”



귀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취임 후 중점을 둔 부분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대외경제 이슈 전반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회의에 참석해 자문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크게 미국 양적완화 문제와 같은 국제 거시금융 이슈, 한·중 FTA나 TPP와 같은 통상 이슈, ODA 등의 국제협력이슈, 그리고 신흥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주요국 및 동북아 협력과 같은 지역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 취임 이후에도 역시 이 몇 가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04년 4월 한·칠레 FTA 발효 이후 한국의 FTA 무역이 10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FTA와 관련해 많은 역할 상의 변화를 맞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우리나라 FTA 정책은 해외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초기에는 경험 부족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칠레, 싱가포르 등과 먼저 추진했습니다. 이 시기에 저희 연구원은 주로 개별 FTA의 추진 타당성이나 협상전략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2004년 이후에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국, EU 등 거대 선진 경제권과 FTA 체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도 심도 있게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주요국과 체결한 FTA가 발효되었고, 한·중·일 FTA나 TPP와 같은 지역경제통합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연구 내용도 양자 FTA 정책 중심에서 FTA 성과 평가와 활용, 양자에서 지역경제통합, 그리고 이에 따른 역내 제도의 국제화를 통한 경제구조의 변화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10년간의 FTA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성과도 있지만 아쉬운 점도 있을텐데요.

외연적인 측면에서는 FTA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고 평가합니다. 다소 늦게 FTA를 추진하기 시작했지만, 현재는 주요 경제권인 미국, EU, 아세안을 포함하여 총 49개국과 11건의 FTA를 '타결'하였고 중국과도 협상을 진행하는 등 FTA 허브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내실 측면에서도 FTA가 우리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당시 수출과 수입에서 FTA 상대국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0.3%와 0.9%에 그쳤으나, 2013년에는 각각 37.6%와 33.0%에 이르러 FTA를 통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데 성공적이었습니다. 게다가 FTA 상대국과의 교역증가율도 우리나라의 평균 교역증가율을 웃돌아 FTA가 양국간 교역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활용률이 그리 높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FTA를 활용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FTA 효과를 잘 체감하지 못한다는 점도 조금 아쉽습니다. 비경쟁적 유통구조의 개선책 마련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국민들 사이에서 FTA에 대한 인식이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FTA 추진 필요성에 대해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협소하고 자원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1989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현재 50여 명의 박사급 연구원을 포함한 110여 명의 연구원이 다자 및 쌍무적 무역통상, 국제금융협력, 국제투자, 해외주요국 및 지역경제 등과 관련된 문제를 조사·분석하고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일형 원장은 지난해 8월 제9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적극적인 개방 정책으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FTA는 체결국 간 교역 비용을 줄여주고 투자 관련 여건을 개선하는 등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575건의 FTA가 체결되어 그 중 379건이 발효된 상황이며 최근에는 거대경제권 간 FTA가 추진되는 등 국제 통상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우리 기업들의 경쟁여건은 갈수록 악화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FTA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것입니다만, 실제 FTA를 추진할 때는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과 더불어 대국민 소통 과정을 충분히 거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한국은 한·중 FTA 협상, 한·호주 FTA 서명, TPP 협상 가입 등 새로운 FTA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중국과는 가공무역을 통해 선진국으로 재수출하는 교역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중국의 내수중심 정책을 감안하면 중국과의 FTA를 통해 내수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도 북한 경제개발에 대한 중국과의 공조가 필요합니다. 한·중 FTA는 효과가 큰 만큼 민감한 분야도 많습니다. 따라서 민감분야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함께 조속한 타결을 위해 협상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주는 우리의 주요 광물자원 수입국이자 투자대상국입니다. 금번 FTA를 통해 호주 시

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그동안 쟁점이었던 ISD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호주 광산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TPP는 미국이 주도하는 아태지역 경제통합 논의이며, 현재 일본을 포함한 12개국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일부 TPP 회원국과의 FTA를 매듭짓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회원국들 간에 형성되어 있는 생산분업 구조를 누적원산지 규정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국제통상규범이 논의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정부는 TPP 회원국들과 양자비협의를 통해 가입조건에 대해 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내적으로는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마련과 우리 산업의 이해를 반영한 협상전략 수립을 병행하여 뒤늦은 참여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일형 원장 약력
1958년생.
런던정경대 경제학과 졸업.
워릭대 경제학 박사.
1996년 IMF 선임 이코노미스트.
2010년 IMF 중국 주제 수석대표.
2013년 G20 국제협력대사(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현).

자동차 정밀 사출성형 업체, 니프코 코리아

“제품을 생산하듯, 신속·정확하게 원산지확인서를 ‘납품’합니다”

니프코 코리아는 지난해 10월 열린 ‘2013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3개 업체 수상)을 받은 업체다. 함께 수상한 다른 기업들의 경우 작은 기업들이 불굴의 의지로 FTA를 활용해 수출을 개척한 사례라면, 니프코 코리아는 현대적인 대량생산 기업에서 FTA 활용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니프코 코리아는 국내 모든 차종에 들어가는 내장재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사진은 FTA 활용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서정환 영업총괄 이사.



니프코 코리아는 2012년 초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체계적인 FTA 활용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생산하는 주요 제품에 대해서는 모두 관세평가분류원에 의뢰해 품목분류를 마치는 등 만전을 기했다.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테크노밸리에 위치한 니프코 코리아 본사는 입주한 지 석 달 된 최첨단 현대식 공장이다. 흔히 플라스틱 사출성형 공장이라고 하면 비좁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곳을 떠올리지만, 이곳은 멀리서 보면 마치 미국 실리콘밸리의 여느 IT(정보기술)기업 사옥처럼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을 자랑한다.

생산현장에 들어서도 역한 플라스틱 냄새는 거의 나지 않았고, 기계도 깨끗했으며, 공간도 넓었다. 49대의 기계들이 쉬지 않고 각기 다른 플라스틱 부품들을 쉬지 않고 찍어내고 있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는 기계들을 점검하고, 생산된 제품들을 수거해가는 것이 전부다. “사출성형 기계들은 모두 동일하게 작동되고, 금형만 바뀌면 다른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품종 소량생산이면서도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비결이죠. 모두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불량률을 제로에 가깝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공장을 안내한 김영덕 생산관리팀 과장의 말이다.

국내 모든 차종의 내장재 부품 생산

1985년 설립돼 내년이면 30주년이 되는 니프코 코리아는 직원 수 712명, 매출 3,370억 원(2013년 말 기준) 규모의 중견기업이다. 주요 생산품은 자동차용 플라스틱 부품들로, 니프코 코리아는 국내 1, 2위를 다투는 업체다. 현재 아산(본사), 울산, 연양 등 세 곳의 생산시설에서 국내 생산되는 모든 차종에 들어가는 내외장 플라스틱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아산공장의 경우 월 2,700여 종, 1억 개의 부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니프코 코리아의 제품은 차량의 인상을 좌우하는 헤드램프, 리어램프와 탑승 시 직접 마

주하게 되는 대시보드 및 센터패시아, 에어벤트, 암레스트 등 탑승자의 편의를 돕는 것들이다. 가볍고 튼튼해야 할뿐만 아니라, 눈으로 봐서 아름다워야 하고, 만졌을 때 촉감이 좋아야 한다.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고 외장 디자인이 멋있어도, 내장재가 부실하면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만큼 자동차의 감성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자동차 경량화에 따른 플라스틱 부품 확대 추세에 따라, 차량 내부의 결합에 필요한 플라스틱 부품류(Plastic Fastener) 및 아웃도어용 제품류(Plastic Buckle)도 확대 생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웃도어용 제품 생산도 조금씩 확대하고 있다.

국내 주요 메이커들에 공급하는 만큼 니프코 코리아의 FTA 활용 업무의 대부분은 국내 거래에서 필요한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이다. 국내 자동차 메이커의 해외 공장으로부터 납품하거나, 자사의 해외 법인으로 보낼 때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다. 원산지(포괄)확인서든 원산지증명서든 원산지 판정·증명 및 서류보관 업무는 동일하게 진행된다. “한·EU FTA가 발효되기 직전인 2011년 초에 고객사로부터의 요청으로 FTA 활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2011년 10월 본사를 시작으로 국내 2개 공장 모두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받아 문제없이 한·EU FTA를 대비했습니다.” 서정환 영업이사의 설명이다.

2012년 초, 한국의 최대 자동차 수출 시장인 미국과의 FTA 발효를 앞두고 FTA 업무는 전사 차원의 과제가 됐다. 서 이사는 “당시 태스크포스팀(TFT)을 결성하고 회계법인과 연계해 FTA 전산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생산과 재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원산지를 판정

하고 입증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체계화했죠. 생산 아이템 중 대표적인 것 150여개에 대해 모두 관세평가분류원의 판정을 받았습니 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협력사 대상 FTA 교육·컨설팅 성과 이뤄

그러나 수많은 공급사들을 형성하는 자동차 부품의 특성상 니프코 코리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FTA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다. 원재료 공급사의 원산지확인서가 없이는 니프코 코리아도 국내산 입증이 어렵다. 이에 따라 2013년에는 협력사들의 교육 및 컨설팅에 주력했다. 자체적으로 협력사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각 업체를 방문해 미흡한 점을 짚출 수 있도록 도왔다. 심지어 협력업체들이 수준별로 FTA 업무를 익힐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10권의 단계별 교재를 제작하기도 했다.

니프코 코리아가 관심을 갖고 FTA 업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명하자 협력사들도 빠르게 실력이 향상돼 지금은 원활하게 FTA 활용이 가능해졌다. “제품에도 납기가 있고 불량이 없어야 하듯이,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요청이 오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장철 영업관리팀 팀장의 설명이다. 제품을 납품하듯 FTA 업무에 만전을 기하다 보니, 사후검증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었다. “EU와 미국으로부터 7건의 검증이 왔습니다. 검증이란 검증은 다 받아 봤습니다. 처음엔 회계법인의 컨설팅을 받아 대응했지만, 몇 번 하면서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 FTA 활용 정착에 매진했던 니프코 코리아는 올해부터 FTA를 활용한 수출 전략을 수립해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니프코 코리아의 FTA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직원들. 왼쪽부터 김수현 영업관리팀 대리, 권장철 영업관리팀 팀장, 김영덕 생산관리팀 과장.

오스카 화장품 1964년, 한국의 미(美)를 세계에 알리다



‘오스카. 젊은이들이야 아카데미 시상식의 트로피 이름이냐고 되물겠지만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세월 저 너머의 화장품 브랜드를 기억할 것이다. 반 세기 전 태평양화학(현 아모레퍼시픽)에서 개발돼 바다 건너 에티오피아로 처음 수출된 국산화장품 ‘오스카’. 한국 최초 화장품 수출의 바탕에는 개성상인의 신용제일주의와 품질우선주의, 그리고 세계를 향한 도전 정신이 있었다.

1964년 7월 22일자 경향신문 6면의 한 가운데에는 단 두 문장으로 구성된 단신 기사 한 건이 자리해 있다. ‘국산화장품을 수출 태평양화학서 계약’이라는 제목의 기사다. 그리고 약 반 세기가 지난 2013년 12월, 각 일간지와 인터넷에는 태평양화학의 후신인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또 다른 기사가 실렸다. ‘아모레퍼시픽, 올해 1억 달러 수출’이라는 제목이었다. 약 50년 전, 일간지에 자그마하게 실렸던 짧은 소식은 극동의 작은 나라, 그것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쌓아 올린 성공 신화의 서막이었던 셈이다.

1932년, 고 윤독정 여사가 부자도시 개성서 화장품 사업 시작
아모레퍼시픽 수출 신화를 살펴보면 193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 해는 아모레퍼시픽의 창업자인 서성한 회장의 모친 고(故) 윤독정 여사가 개성에서 화장품 사업을 시작한 연도다. 윤 여사는 뛰어난 경영 감각의 소유자였다. 당시 개성지방은 인삼 덕분에 다른 지역보다 소득 수준이 높았는데, 이를 간파한 윤 여사는 다소 고가인 동백기름을 짜 만든 머릿기름을 생산·판매했다. 전략은 적중했고 사업은

번창했다. 윤 여사는 미안수(액체 화장품), 구리무(크림), 가루분(백분)과 같은 피부용 화장품을 차례로 제조 판매했다. 철저한 품질과 신용 중시 경영으로 사업은 점차 번성했다. 윤 여사는 ‘창성상점(昌盛商店)’이라는 이름의 회사를 세우고 상품에 ‘창성당제품’ ‘오리지날’ 등의 문구로 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했다.
윤 여사의 경영은 차남인 고 서성한 회장(1924~2003)이 물려받았다. 서 회장은 가업으로 쌓아온 화장품 제조법을 배웠고, 개성에서 서울까지 원료를 구입하기 위해



1964년 한국 최초의 화장품 수출을 활용한 오스카 화장품의 당시 신문광고.

자전거로 물건을 싣고 다녔다. 또, 당시 개성에서 가장 큰 백화점이었던 김재현백화점 내에 화장품 코너를 개설해 유통의 경협도 쌓았다. 이는 본격적인 화장품 사업의 근간이 됐다. 1944년 강제징용 때문에 경영 수업은 잠시 중단됐지만 1945년 광복을 맞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서 회장은 ‘태평양상회’로 상호를 변경했다. 거기엔 태평양 바다처럼 큰 기업을 만들겠다는 의지와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로 성장시키겠다는 개성상인의 꿈이 담겨있었다.

싸구려 화장품과 일본제 밀수품들이 기승을 부리던 1948년, 태평양은 메로디크림을 시장에 내놓았다. 품질·네이밍·디자인의 삼박자가 절묘하게 결합된 제품이었다. 당시 태평양은 이 크림의 라벨을 일본에서 인쇄해 올 정도로 제품의 질에 주목했다. 그 결과 메로디크림은 시장의 확대 속에 큰 성공을 거뒀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에는 ABC 포마드를 세상에 선보였다. 이 제품은 당시 국산 화장품 기술 수준으로는 획기적인 제품이었다. 바셀린 대신 피마자유를 사용한, 국내에서는 최초로 개발된 순식물성 포마드였다. 머리칼이 뺨뺨해지지도 번들거리지도 않으며 감으면 잘 씻긴다는 특징이 있었다. 태평양은 1954년에는 국내 화장품 업계 최초로 연구실을 개설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서 회장은 태평양을 국내 화장품 업계의 선두주자로 성장시켰다. 1969년 기준, 56개 등록업체 중 태평양의 시장 점유율은 단연 1위였다. 그 해 태평양은 19억 6,600만 원의 화장품을 판매했는데 이는 그 해 전체 생산량 28억 900만 원의 70%에 달했다. 잘 짜인 판매 조직과 여유 있는 자금 사정 때문이기도 했다.

에티오피아 첫 수출 이후 동남아·일본·유럽·미국 시장 개척

1960년 7월, 서 회장은 미국 노스웨스트기를 타고 프랑스 방문길에 올랐다. 세계 화장품 시장을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4년 후인 1964년, 태평양이 개발 생산한 ‘오스카’가 처음으로 수출길에 올랐다. 20여 종의 화장품을 실은 배가 에티오피아로 향했다. 태평양의 해외 진출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이는 1962년에 준공된 영등포 공장의 최신 설비 덕택이기도 했다. 신대방에 위치한 영등포 공장은 대지 6,849평, 건평 1,700평으로 당시 국내 최대 규모였으며, 자동화 시설을 갖췄다.

서 회장의 글로벌화 전략은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의외의 것이었다. 1960년대 외산 화장품과 국산 화장품의 소비 비율은 50

대 50으로 비슷했다. 하지만 국산품 애용을 촉구하는 사회 분위기였다 1961년 공표된 ‘특정 외래품 판매금지법’으로 외제 화장품 수입이 어려워졌다. 국산 화장품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였다. 또, 약 600만 명에 불과했던 화장품 사용 인구가 점차 늘어날 것을 고려하면 내수에 집중해도 될 법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태평양은 국내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 진출을 시도했다. 태평양은 1969년의 견본 수출에 이어 이듬해 태국으로 수출하며 동남아 시장도 개척했다. 1971년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화장품 콘테스트에서는 3개의 금상을 수상할 정도로 기술력도 인정받았다. 탄력을 받은 태평양 화장품은 글로벌 기업의 틀을 만들기 위해 같은 해 일본 도쿄에 현지법인을 설립했으며 이후 뉴욕, 프랑크푸르트에도 지사를 세웠다.

태평양의 해외 진출 노력에 힘입어 한국은 1979년 국내 화장품 시장의 수출과 수입의 균형을 맞출 수 있었다. 그리고 1980년, 태평양은 1,0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 이 해 수출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국내 1호 수출 화장품인 오스카가 수출길을 처음 밟은 후 50년이 흐른 지난해 아모레퍼시픽이 화장품 업체로는 처음으로 연간 수출액 1억 달러를 돌파했다.●

양념치킨

:세계인의 입맛을 휘어잡은 선봉장



매달 10억 명 이상이 시청한다는 미국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youtube.com) 검색창에 '양념치킨'이라고 한글로 입력하면 'Korean Fried Chicken Recipe'라는 영어 제목의 영상이 검색 결과로 잡힌다. 에밀리 김(유저명 Maangchi)이라는 재미교포 여성이 올린 양념치킨 조리법 영상이다.

7분 15초 길이의 이 영상은 2011년 1월 업로드 된 이후, 전 세계 누리꾼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으며 2014년 1월 말 현재 약 193만 회라는 놀라운 조회 건수를 기록 중이다. 또 다른 한류 스타라고 할 만하다. 손으로는 정성스레 요리를, 입으로는 유창한 영어로 요리 방법을 설명하는 김 씨의 영상에 재미있는 댓글이 무수히 달려있다. 어떤 누리꾼은 "괜히 밤에 봤다. 배가 고프다"라고 소리치고, 다른 이는 "영상을 따라 양념치킨을 만들었더니 모두가 좋아했다. 계속 해달라고 조른다"라고 기쁜 듯 말한다. 답답한 듯 "대체 고추장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도 있으며, "소스에

치킨계의 왕중왕은 무엇일까? 혹은 전통의 프라이드 치킨을, 누군가는 2000년대를 풍미한 간장 치킨을, 또다른 이는 비교적 신성(新星)이라 할 수 있는 파닭을 꼽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한국적이라 할 수 있는 메뉴는 고추장을 베이스로 한 '양념치킨'이 아닐까. 1980년대 초반에 개발된 양념치킨은 예전의 인기는 한풀 꺾였지만 바다 건너 외국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고 있다.

들어가는 케첩 대신 포도즙을 넣어도 되냐"는, 한국인 입장에서 웃음이 절로 나오는 댓글도 보인다. 양념 치킨 조리법 영상의 또 다른 흥미로운 부분은 김 씨가 올린 또 다른 영상인 '김치 만드는 법'보다 더 짧은 기간 동안 더 많은 조회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치 조리법 영상은 140만 건으로 양념 치킨 조리법 영상보다 약 60만 건이 적다. 비빔밥은 70만 건, 불고기는 22만 건에 불과하다.



에밀리 김(유저명 Maangchi)이라는 재미교포 여성이 올린 7분 15초 길이의 양념치킨 조리법 영상은 2011년 1월 유튜브에 업로드 된 이후 현재 193만 회라는 놀라운 조회 건수를 기록 중이다.

'KFC'는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의 약자?

지난 2013년 4월 미국의 유력 매체인 시카고 트리뷴은 "미국 남부의 프라이드치킨이 동아시아 및 극동아시아의 각종 소스와 만나 다양한 맛을 낸다"며, TV 프로그램 '김치 크로니클'로 유명한 한국계 MC 마르자 봉게리히텐의 말을 인용해 "짹짹한 미국 치킨과 달리 한국의 양념치킨은 달콤하고 끈적거린다. 환상적인 맛으로 미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양념치킨의 인기는 미국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싱가포르 스트레이트 타임스는 지난해 '싱가포르가 한국 치킨에 미쳐 있다'는 기사를 게재하며 'KFC'는 더 이상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Kentucky Fried Chicken)의 약자가 아닌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Korean Fried Chicken)의 약자라고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시카고 트리뷴이 지적하듯, 양념치킨은 미국식 프라이드 치킨과 한국식 소스가 결합돼 탄생한 것이다. 육계 사육이 증가해 닭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한 1960년 중반 한국에서 '밖에서 사 먹는 닭 요리'라 함은 닭백숙이나 '명동 영양센터'를 위시한 전기구이 통닭을 일컫는 것이었다. 미국식 프라이드 치킨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캠프 워커, 캠프 헨리 등 대구 소재 미군 부대에서 팔던 프라이드 치킨이 대구 시내로 전파되면서다. 기름에 튀긴 덕에 맛이 고소한데다 튀김옷을 입혀 양이 훨씬 풍성해 보인다는 점이 닭요리집 주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튀긴 닭을 즐기던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됐다.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공장 및 사무실 노동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간식이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인 제너시스 BBQ그룹이 2013년 4월 17일 미국 뉴저지주 에디슨에 개장한 프리미엄 매장이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필요했는데 배달 서비스와 접목된 치킨은 이에 적합한 음식이었다. 1970년대 말에 들어와 증가한 식용유 생산량도 프라이드 치킨의 대중화에 한몫했다. 1977년에는 국내 최초의 프라이드 치킨 프랜차이즈인 '림스치킨'이 탄생하기도 했다.

프라이드 치킨에 한국식 소스를 바른 '양념치킨'이 등장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다. 프라이드 치킨을 기반으로 한 닭고기 프랜차이즈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들 업체에서는 색다른 맛을 통한 차별화 전략이 절실했다. 양념치킨은 이런 전략이 하나의 메뉴로 개발된 것이었다. 입안이 다소 느끼해지는 프라이드 치킨에 비해 고추장, 마늘, 양파 등을 재료로 한 소스를 바른 양념치킨은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았다. 외국 음식이었던 치킨이 한국 음식으로 변화하는 시점이었다.

베트남에선 한국 양념치킨이 고급 음식

가장 유명했던 양념치킨 브랜드는 '페리카나'와 '처갓집양념통닭'이었다. 두 브랜드는 개그맨 최양락과 쓰리랑 부부로 인기몰이 중이던 김미화, 김한국을 내세워 가족 단위 고객을 겨냥한 마케팅을 펼쳤다. 특히 페리카나의 CF에 등장하는 노랫말 "페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정말 맛있는 치킨이 찾아왔어요 페리 페리

페리카나"는 어린이들이 곧잘 흥얼거리기도 했다.

양념치킨의 전성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1990년대 중반 튀김옷을 두껍게 입힌 프라이드 치킨이 유행을 끌었고 2000년대 초반에는 간장을 베이스로 한 소스가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파채와 겨자소스를 곁들여 치킨의 느끼함을 잡은 파닭도 양념치킨의 재도약을 막았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독특한 양념 맛에 한국식 빠른 배달 서비스까지 접목된 양념 치킨은 한국식 치킨의 대표 주자로 손꼽히며 연일 주가를 높이고 있다. 오랫동안 프라이드 치킨만 먹어 온 외국인들이 고추장과 마늘의 조화가 주는 맵고 달콤한 맛에 매료되고 있는 것. 덕분에 간장 치킨 등 다른 한국식 치킨들도 인기를 높이고 있다. 양념치킨이 선봉에 서서 다른 치킨 메뉴들을 견인하는 모양새다.

해외시장에서의 선전에 '교촌치킨' 'BBQ치킨' 등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들의 진출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현지 제품보다 20~30% 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BBQ 양념치킨의 시장 점유율은 업계 1위다.☞

자유무역의 역사-②DDA란 무엇인가

WTO 출범 이후 첫 무역협상... 159개국 참여

FTA는 많이 들어봤어도, DDA란 용어는 생소하다는 사람들이 많다. FTA와 DDA 모두 무역자유화를 위한 수단이다. 다만 FTA는 양국간 또는 몇몇 나라만 참여하는 무역자유화 협정인 반면, DDA는 WTO 159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DDA(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은 2002년 처음 개시됐다. WTO(세계무역기구)의 전신인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시절 모두 8차례의 다자간 무역협상이 있었으며, 1993년에 타결된 8차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은 GATT 체제에서의 마지막 협상이 되었다. 1995년 WTO가 설립되고 나서 처음으로 진행된 협상이 바로 DDA이다. 따라서 DDA는 GATT 시절과 연결하면 제9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셈이다. UR 협상 타결 당시 회원국들은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2000년부터 추가적인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많은 회원국들은 공산품분야에서도 아직 무역장벽이 많이 남아 있고,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새로운 무역규범도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WTO 회원국들은 1998년 5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 폭넓은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준비하기로 합의했다.

01 2001년 도하에서 출범 선언, 이듬해 협상 시작

3년 반 동안의 논의를 거쳐 2001년 11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의 출범을 선언하는 각료선언문을 채택하게 되었다. 협상의 명칭에 기존 '라운드' 대신 '개발'이 붙은 것은 이전 협상들과 달리 개도국의 경제개발 문제에 특히 중점을 둘 것을 요구하는 개도국들의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는 WTO라는 국제기구에서 개도국의 파워가 그만큼 신장되었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한다.



주요뉴스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된 DDA 협상은 과거의 어느 다자간 무역협상보다 폭넓은 의제를 다루고 있다. 협상의제는 크게 ①농산물, 농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공산품 및 임수산물), 서비스 시장 개방, ②반덤핑, 보조금, 지역무역협정, 분쟁 해결 절차 개선, ③무역 원활화, 환경, 개발, 지적재산권 등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뉜다. 특히 DDA에서는 무역차원에서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방법을 중요한 주제로 논의하고 있는데,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를 강화하고, 기술협력사업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시장개방 문제와 함께 다수의 무역규범 관련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개도국의 경제개발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DDA 협상은 과거의 다자무역협상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방대한 협상 의제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농산물, 비농산물(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서비스, 규범(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 환경, 지

지난해 12월 3~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사진·2014년 12월 3~6일)에서 무역원활화, 농업 일부 의제와 개발·최빈개도국 등 3개 분야를 담은 '발리 패키지'가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교착상태에 있던 DDA 협상에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러스트 전희성

적재산권, 분쟁 해결, 무역 원활화, 개발 분야에 대한 협상 그룹이 설치되어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됐다. 농산물과 비농산물에 대해서는 우선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정도 등 시장개방의 정도를 정하는 자유화 세부원칙(modalities)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각국이 구체적인 품목과 보조금 프로그램 별 감축 수준을 제시하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이에 최종적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처음 협상을 출범시켰을 때의 목표는 2005년 이전에 모든 협상을 '일괄타결방식'으로 종료한다는 것이었다. '일괄타결방식'은 모든 분야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최종적으로 협상을 타결하는 방식을 의미 한다(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 그러나 농산물에 대한 수입국과 수출국의 대립,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 등으로 인해 DDA 협상은 출범 이후 12년이란 장기간 동안 정체 상태를 보였다. DDA 협상이 지지부진해지자, 세계 각국은 무역자유화 수단으로 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에 크게 의존하였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도 한·칠레 FTA, 한·미 FTA, 한·EU FTA 등을 체결하면서 기업들의 무역 환경 개선을 위해 주로 지역주의에 치중해 왔다.

02 지난해 12월, 답보 상태였던 DDA 12년 만에 진행된 합의 이뤄내

그러나 마침내 오랜 침묵을 깨고 지난 2013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 농업 일부 의제와 개발·최빈개도국 등 3개 분야를 담은 '발리 패키지'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예정된 폐회시간을 넘겨 밤샘 협상을 하면서 각료회의를 연장한 끝에 이뤄낸 성

과라고 한다. DDA의 포괄적인 협상의제에 비하면 타결된 내용은 협소하다. 그간 WTO가 견지해 왔던 '일괄타결'을 포기하고 일부 분야만 '조기수확'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타결은 적지 않은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추산된다. 발리 패키지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역원활화 협정인데, 통관절차 개선과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통해 무역거래 비용을 줄임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1조 달러의 수출증가 효과와 2,000만 개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된다(국제상공회의소(IC) 분석 결과). 또한 이 패키지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약 1.5~3.9% 증가하고 수출은 4.3~7.4%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KIEP 분석 결과).

이번 발리 합의는 그동안 교착상태에 있던 DDA 협상에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간 협상 정체로 인해 손상됐던 다자통상 체제에 대한 신뢰와 협상 타결에 대한 자신감이 이번 합의로 어느 정도 회복됐다. 그러나 발리 합의는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농업, 제조업, 서비스분야, 지식재산권과 규범 분야 등 골격하고 복잡한 DDA 협상 의제를 포괄적으로 다뤄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무역 비중이 거의 100%에 이르는 통상 대국으로서 DDA 협상이 타결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DDA가 최종적으로 타결되면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공산품 시장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최대 2.49% 증가하고, 서비스 시장 확대를 통해 최대 2.0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KIEP 분석 결과). 따라서 우리는 DDA 협상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의 협상에서 최대한 국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세계의 FTA-①칠레

적극적 FTA 추진, 경제영토 세계 최고



자료: DIRECON, OAS, WTO, 언론보도 종합하여 작성

FTA 이야기를 하며 빼놓을 수 없는 국가가 바로 칠레다. 칠레가 우리나라의 첫 번째 FTA 파트너였기 때문만은 아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FTA 정책을 추진한 국가가 바로 칠레이기 때문이다. 유망 신흥국으로 주목받으면서도 경제의 부침이 심한 중남미 국가들 사이에서, 칠레가 매년 5%대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던 것도 FTA 등 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 세계 51개국과 16건의 FTA 발효 중

칠레가 지금까지 발효한 FTA는 모두 16건으로 국가 수로는 무려 51개국에 달한다. 여기에는 미국, EU는 물론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지역별로도 미주 국가들은 물론 유럽, 아시아, 대양주 등을 골고루 포괄하고 있다.

칠레의 첫 번째 FTA는 1997년 발효된 캐나다와의 FTA이다. 이후 멕시코, 중미공동시장(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5개국과 FTA를 발효한 칠레는 2003년 EU, 2004년 미국 등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FTA를 연달아 발효시켰다. 당시 미국, EU 등 양대 시장과 모두 FTA를 발효한 국가*는 이스라엘, 멕시코, 요르단, 칠레뿐이었다.

이후 칠레는 유럽, 대양주, 미주, 아시아 등으로 보폭을 넓혀갔다.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을 비롯하여 호주, 터키, 파나마, 페루, 콜롬비아 등 다양한 지역의 국가들과 FTA를 체결한다. 또한 칠레는 현재 진행 중인 TPP 협상의 모태인 P4(Pacific4) 협정의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당시 P4 협정에는 칠레를 비롯하여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의 4개국이 참가했다.

2004년 한·칠레 FTA 발효를 필두로 칠레는 2006년 중국, 2007년 일본 등 동아시아의 주요 제조업 강국들과도 FTA를 체결했다. 이로써 칠레는 미국, EU, 한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FTA를 모두 발효하게 된다. 현재 이들과 모두 FTA를 발효한 것은 칠레와 페루뿐이다. FTA 강국으로서 칠레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는 이스라엘, 멕시코, 요르단, 칠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페루, 콜롬비아, 중미 6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이 미국, EU와 FTA를 발효.

여기에 그치지 않고 칠레는 FTA 추진을 더욱 심화시키며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아시아 지역과의 관계 강화 및 역내 경제블록 추진에 적극 임하는 것이 주목된다. 우선 칠레는 그간 FTA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않았던 ASEAN(아세안)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2012년 말레이시아와 FTA를 발효한데 이어, 베트남, 태국 등과는 협상을 타결하고 서명을 완료하여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인도네시아와는 2014년 들어 협상 개시에 합의한 상황이다.

역내 경제블록 추진 논의와 관련해서는 아·태 지역 12개국 간 TPP 협상에 참여하는 한편 중남미 국가 간의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에 주력하고 있다. 2012년 6월 출범한 태평양동맹은 현재 칠레, 페루, 콜롬비아, 멕시코 등 4개국을 회원국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태평양동맹에는 중남미에서 개방정책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들이 포진하고 있는 만큼, 중남미의 대표적 경제블록인 남미공동시장(MERCOSUR)이 내향적인 성향을 지닌 것과 대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과거 중남미의 목소리를 남미공동시장이 대변했던 것을 태평양동맹이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평양동맹은 회원국 간의 FTA를 비롯하여 상품, 서비스, 투자, 인력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공동시장(common market)을 지향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통합 주식시장을 출범하고, 회원국 간 비자면제를 발효하는 한편 4개국 간에 개별적으로 체결된 상호간의 FTA를 하나의 FTA로 묶는 협상을 2013년 8월 타결했고 올해 2월 중으로 협정문에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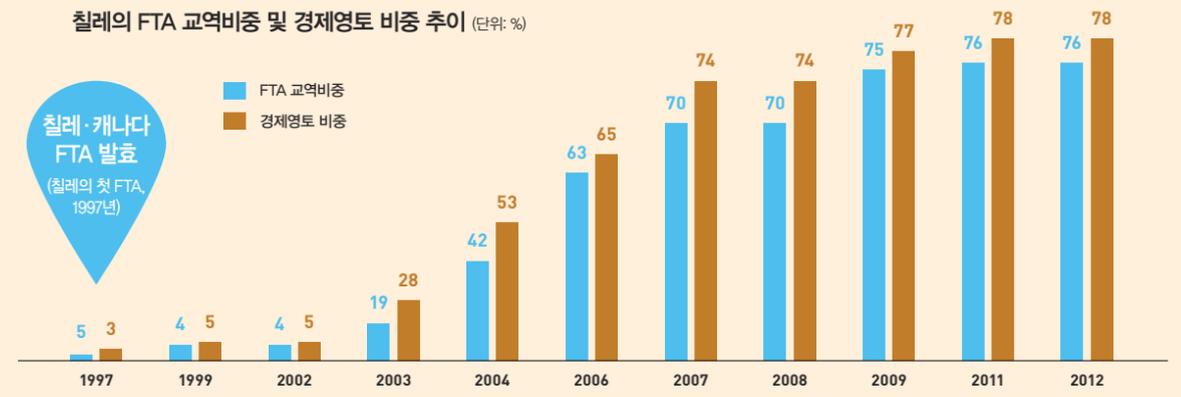
할 예정이다. 또한 코스타리카와 파나마가 신규 가입을 준비 중인 상황으로 향후 태평양동맹의 세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세계 GDP 비중 0.4%, FTA 경제영토는 78%

중남미의 유망 신흥국으로 주목받고 있는 칠레지만 경제 규모는 매우 작은 편이다. 칠레의 GDP 규모는 2012년 기준으로 세계 전체 GDP의 0.4%에 그치고 있다. 인구도 1,750만 명에 불과하다. 이처럼 작은 내수 시장을 극복하기 위해 칠레는 개방 정책을 적극 추진했고 이를 FTA를 통해 구체화 했다.

현재 칠레가 FTA 확대를 통해 확보한 시장의 크기 즉, 경제영토는 세계 GDP의 78%에 달하고 있다. 이는 멕시코(61%), 한국(56%) 등 주요 FTA 강국들을 큰 폭으로 앞지르는 성과로, 경제영토 측면에서 세계 최대 수준이다. 구리, 와인 등 칠레의 주요 상품들이 협소한 국내시장을 넘어 보다 넓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 같은 경제영토 확대와 함께 FTA 교역 비중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칠레 전체 교역의 77%까지 확대되었다.

이 같은 FTA 성과에도 불구하고 칠레의 FTA 추진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칠레는 새로운 국가들로 FTA의 외연을 확대하고, 역내 경제블록 등에 적극 대응하는 등 FTA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 EU 등과의 FTA 발효 이후 새로운 걸음을 준비하는 우리나라가 그 어떤 국가보다 칠레의 행보에 주목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료: 글로벌 인사이드, IMF, 한국무역협회



원산지관리 실무-①원산지소명서

원산지증명서·원산지확인서 발급 시 작성... 5년 간 의무보관 해야

원산지 판정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이르는 원산지 관리 및 원산지 사후검증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원산지 입증서류의 체계적인 보관·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호부터는 원산지 관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자.

원산지소명서란?

원산지소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출물품의 원산지 지위를 판정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의 산정, 제품의 HS 코드 및 그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 등에 대하여 작성한 서류로서, ①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신청 시 ②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근거자료로 활용 시 ③인증수출자 신청 시 ④원산지 검증 시 필요한 원산지 증빙관련 서류다.

이렇듯 수출물품에 대해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근거를 설명하는 소명자료인 원산지소명서는 사후검증을 대비해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수출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소명서는 주로 생산자가 작성하게 되는데, 작성자인 생산자가 공개를 꺼리는 경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원산지소명서는 국문본과 영문본 양식이 있으며, 영문본 작성이 의무는 아니다.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포괄)확인서

중중 원산지(포괄)확인서와 원산지소명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하면, 원산지소명서는 대외적으로 보관하는 것, 원산지(포괄)확인서는 대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최종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정확하게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국내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 FTA 원산지 판정이 이루어진 일종의 국내용 원산지증명서(C/O)로 간주할 수 있다.

원재료 공급자가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출업체에 제공하면 수출업체에서는 이를 근거로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즉, 원재료들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와 제품의 원산지소명서를 바탕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원산지검증 대비 사전관리 체크포인트

- ①기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한 원산지소명서는 반드시 보관
- ②원산지소명서와 상업송장상 물품의 품명 및 규격은 반드시 통일(그렇지 않을 경우 원산지소명서와 다른 물품이 수출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
- ③원산지소명서상 물품의 가격은 협정별로 채택된 가격을 반드시 사용(EFTA, EU 및 터키 FTA는 EX-Works, 그 외 FTA는 FOB)
- ④투입된 원재료는 빠짐없이 원산지소명서에 기재
- ⑤원산지소명서를 제출할 경우 서명 및 날인·명판하여 제출
- ⑥원산지소명서 형식적 요건에 따라 하단 '원산지인정요건 검토' 항목을 업체 상황에 맞게 체크

원산지소명서 작성방법

1.수출자
물품을 실제로 수출한 자로서, 수출신고서 및 인보이스 상 수출자의 정보를 기재한다.

물품명세

3.품명/규격
물품의 품명, 모델명, 규격 및 상표명을 상세하게 기재하는데, 품명은 상업송장 및 수출신고서 상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한다.

4.HS No.
수출물품의 HS 6단위의 품목번호를 기재한다.

5.물품가격
가격조건은 각 FTA 협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본선인도가격 조건일 때는 FOB, 공장도거래가격 조건일 경우에는 Ex-Works에 표기한다. 금액란은 수출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재하는데, 통화단위는 상업송장에 적은 것과 일치하여야 하며 각 협정에서 정한 가격조건에 따라 물품가격을 산정하여 기재한다. 보통은 물품 1개당 금액을 기재하지만, 그 금액이 너무 작을 경우 100개 당 또는 1,000개 당 묶음 단위로 작성도 가능하다.

6.원산지 결정기준
해당 물품의 HS 코드에 따라 협정별로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기재한다.

7.주요 생산과정
물품의 주요 제조과정 및 공정방법을 기재하는데, 상세 제조공정을 적어야 할 경우 별도 작성도 가능하다.

원산지소명서			
1.수출자	상 호	대한국공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김한국	전화 / 팩스
2.생산자	상 호	대한국공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김한국	전화 / 팩스
주요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물품명세			
3.품명/규격	Spark Plug/XFPC-1	4.HS No.	8511.10
5.물품가격	가격조건 FOB (), Ex-Works (✓)	6.원산지 결정기준	세번변경기준(CTH)
7.주요생산과정	W26,500/1PC		
원재료명세서			
8.연번	요재료명	10.HS No.	11.원산지
1	Ceramic Insulator	8547.10	KR
2	Ceramic Spark-Plug Braker	8547.10	JP
3	Gasket	8484.10	VN
		12.가 격	13.공급자 (생산자)
		수량	가 격
			Hanoi Industry
14. 합 계		원산지재료(국산)	₩6,300
		비원산지재료(수입산)	₩8,200
		합 계	₩14,500
원산지인정요건 검토			
15.관련생산기준 충족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6.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17.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부가가치비율 : 5%)	
18.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중시 적용통칙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9.최소기준 적용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누적기준 적용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21.역회귀기준 적용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22.지점출산 여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23.기 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원산지 결정	충족 (✓)		불충족 ()
() 자유무역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작성·제출됩니다.			
작성 자 : 김한국		직 위 : 대표이사	
상 호 및 주소 : 대한국공업(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작성 일자 : 2014. 2. 14	

2.생산자
수출물품을 실제로 생산한 자의 정보를 기재한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출자에게 작성하여 제출한 생산자의 정보와 일치하여야 하며, 생산자가 다수일 때는 별지에 적는다.

원재료명세서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한 내용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FTA 원산지 판정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재하고 원산지(포괄)확인서, BOM 등의 입증자료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재한다.

8.연번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일련번호를 적는다.

9.재료명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품명을 기재하며, BOM(자재명세서) 상품명과 일치하도록 기재한다.

10.HS No.
원재료의 HS 6단위 품목번호를 적는다.

11.원산지
원재료의 생산국명을 적으며, 원산지(포괄)확인서가 미수취된 경우 미상으로 기재한다.

12.수량 및 가격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량과 가격을 기재한다. 다만, 미소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세번변경 기준인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다.

14.합계
원재료 중 원산지재료(국산)의 합계와 비원산지재료(수입산, 원산지 미상)의 합계액을 기재하고 전체 원재료 구입 총금액을 적는다. 미소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생략 가능하다.

원산지인정요건 검토(15~24번)
물품의 원산지결정에 실제 적용된 기준의 충족 여부를 표기하며, 17의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에 '예'로 표시한 경우 부가가치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작성한다. 19~21에 '예'로 표기한 경우 세부 내역을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한다. 종종 부가가치기준과 원천생산기준을 중복하여 표시하는 등 기재상의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하단
당해 수출물품에 적용하는 FTA 협정명칭을 반드시 기재하고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서명 날인한다.

※위 예시에 사용된 수출자·생산자·공급자는 가상의 회사 및 인물임.

실전 품목분류 사례 분석-②해물파전

HS코드는 국제 기준... 한국 전통음식 분류 까다로워

품목분류 오류는 세율뿐만 아니라 FTA 원산지 판정, 수입요건, 원산지 표시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기업들은 기존 품목분류에 대하여 재검토를 진행하거나 품목분류에 대한 법적 근거까지 확보해 두는 등 품목분류 고도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 **품명** 해물파전
- **제품 설명** 절단한 각종 해물·채소, 부침가루, 물, 조미료 등을 혼합·반죽하고 성형하여 구운 후 급속 냉동한 것을 소매 포장한 것(사진은 포장되지 않은 상태임)
- **HS코드 판정** 1905.90호(19류는 곡물·곡분·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제품임)
- **판정 이유** 일반적인 베이커리 재료인 소맥분 및 소맥전분 함량과 채소 함량이 거의 비슷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분의 반죽을 성형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성형물을 뜨거운 철판에 기름을 바른 후 구웠으므로 베이커리 제품에 해당
- **유의사항** 소시지나 육류, 어류 등의 배합물이 전체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제품(예: 고기완자, 동태전)과 채소조제품으로 볼 수 있는 제품(예: 아채튀김)은 예외.

접한 외국인들은 진짜 맛있으며 한류의 맛에 감탄한다.

특히, 외국인의 막걸리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막걸리와 함께 안주로 먹을 수 있는 각종 전 요리인 동태전, 김치전, 파전 등이 외국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가운데, 냉동식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C사는 최근 식품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한식수출을 위한 홍보에 집중하는 등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식품 수입시장인 미국에서 그동안 미미했던 한국의 식품은 한·미 FTA의 특혜관세를 적용 받아 앞으로 미국 시장에

최근 영화, 드라마, 가요 등 대중문화 중심으로 확산된 한류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한식이 외국인의 입맛도 사로잡고 있다. 동태전, 김치전, 해물파전, 빈대떡, 비빔밥, 불고기, 잡채 등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서 성장 가능성이 큰 품목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EU 역시 한·EU FTA를 통해 한국산 가공식품 값은 떨어진다 한류 바람까지 거들면서 대형마트의 주요 매대를 당당히 차지하고 있다.

인도, 중국 등 아시아국가 음식들은 대부분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는 포장형태로 개발되어 팔리고 있으므로 한식도 한정식의 보급보다는 쉽게 먹을 수 있는 가공 포장식품류를 유통매장에 보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C사의 냉동포장식품 시장성은 우월하다고 볼 수 있었다.

01 밀가루에 기타 재료 섞어 익힌 전류는 베이커리 제품으로 분류

이렇듯 한류와 웰빙 트렌드에 맞춰 한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여러 국가들과 잇따라 FTA가 체결되면서 C사에는 현재 EU, 미국, 일본, ASEAN(아세안) 및 중동국가 등 해외 바이어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수입하려는 바이어들은 많아졌지만 아직 FTA 활용을 위한 C사의 수출 준비는 많이 부족한 형편이었다. HS코드 확인 등 원산지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FTA 상대국에서 종전과 같이 수입하며 관세를 내게 되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C사가 주력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각종 전(煎)류 즉, 김치전, 부추전, 해물파전, 녹두전의 원산지 판정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비슷한 전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육어류 배합물 비중이 높은 제품은 16류(육어류 조제품), 채소 비중이 높은 제품은 20류(채소과실조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사진의 고기완자는 16류, 고추전은 20류로 분류된다.

HS코드를 살펴보자. 먼저 C사의 전류는 절단한 각종 채소, 부침가루, 물, 조미료 등을 혼합, 반죽하고 성형하여 구운 후 급속 냉동한 것을 소매 포장한 것이다.

일반적인 베이커리 재료인 소맥분 및 소맥전분 함량과 채소 함량이 거의 비슷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분의 반죽을 성형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성형물을 뜨거운 철판에 기름을 바른 후 구운 C사의 전류는 베이커리 제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타 베이커리제품이 분류되는 HS1905.90호에 분류한다. 참고로 제19류는 곡물·곡분·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제품이 분류되는 세 번이다.

하지만 반드시 전류가 HS1905호에 분류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HS1905호에서는 소시지나 육류, 어류 등의 배합물이 전체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제품(예: 고기완자, 동태전)과 채소조제품으로 볼 수 있는 제품(예: 아채튀김)은 예외로 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로 육어류 배합물 비중이 높은 제품은 16류(육어류 조제품), 채소 비중이 높은 제품은 20류(채소과실조제품)로 분류될 수 있다.

HS1905호에 해당하는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으로, 이는 그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품목분류가 19류 이외인 경우 원산지로 인정된다는 의미이다. 한·EU FTA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

료(제11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모든 4단위 호의 원료에서 전이 분류되는 HS1905호로 변경되면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미 FTA와 달리 특이한 것은 원료의 품목분류에 HS1905호를 포함하고 11류에 해당하는 밀가루, 곡분을 제외하고 있어 전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밀가루 등 부침가루는 한국산이거나 EU산(누적기준 조항에 의거)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02 전류는 재료 비율에 따라 2단위 HS코드가 달라져

참고로 HS1905.90호의 미국 및 EU에서의 협정세율은 모두 즉시 철폐품목으로 원산지가 한국으로 판정되고 각 협정에 맞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한 경우 현지 관세율은 0%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전류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전통 먹거리에 가까운 C사의 다른 생산품 역시 여러 가지 재료가 혼합된 식품으로 HS 품목분류가 쉽지 않다.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청이나 관세사에 문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가 있으므로 이 제도를 이용하면 정확한 품목분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식품류의 경우 FTA 원산지판정 역시 어려울 수 있으므로 FTA 전문가관에 문의해 특혜관세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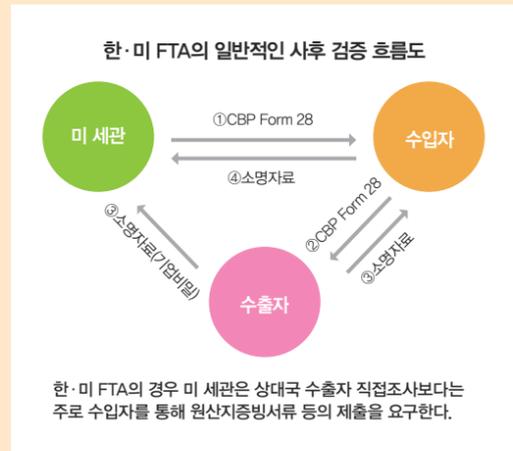
사후검증 따라잡기-②한·미 FTA의 원산지 검증 절차

CBP 검증 요청 시 30일 이내 자료 송부해야

한·미 FTA 활용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사후검증 건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한·미 FTA 협정에서는 미국 세관이 직접 검증을 진행하기 때문에 처음 접해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황하게 된다. 이번 호부터 한·미 원산지검증 절차 및 실제 검증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알아보자.

원산지검증 흐름

원산지 사후검증은 검증 주체에 따라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행하는 수입자검증과 수출국 관세당국이 수행하는 수출검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원산지 사후검증은 보통 수입자 검증 이후 추가 검증이 필요하면 수출자 검증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수입자 우선검증원칙). 이는 미국에서도 동일한 순서로 진행되며,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자가 수출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초기단계부터 적극 대응 필요

미국 세관(CBP: Customs & Boarder Protection)이 원산지 검증을 위해 수입자에게 요구하는 서류에는 소요부품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 원재료 정보(원가내역, 구매내역, 원산지 정보 등), 생산기록 등의 여러 서류가 포함되는

데 해당 정보는 수입자가 구비하거나 작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검증 사실을 수입자가 먼저 파악하게 되고 관련 내용을 수출자에게 알리기까지 평균 2~3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 대응 자료는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하므로, 이는 수출자가 관련 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미 세관으로부터 FTA 관련 정보제공을 요청받을 것을 대비해, 즉시 수출자에게 알려줄 것을 사전에 협의해 자료 준비 시간을 확보해야 하고, 검증 대응이 부실할 경우 2차·3차 보완자료 제출 및 이의신청(원산지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까지 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따르므로 미리 검증 절차 및 요청서류에 대한 정보를 얻어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 한다.

민감자료의 보호

정보제공요청서에는 원재료 단가, 재무정보, 원재료 비율 등의 중요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부가가치법 등으로 원산지 판정을 한 경우, 증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수출자 입장에서는 민감자료가 바이어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수출자는 해당자료를 미국 관세당국에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미국 관계법령(FOIA: Freedom of Information Act, 5 U.S.C 552)에 의해 요청을 하면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통 세관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하거나 제출하는 서면자료에 관련규정에 따른 비공개 요청문구(예: These documents are classified confidential

based on FOIA(Freedom of Information Act, 5 U.S.C 552))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정보제공요청서 및 결과통지서

①CBP Form 28(Request for Information)

CBP에서는 원산지검증을 진행할 때, 'US-Korea FTA Implementation Instruction'에 따라 'CBP Form 28'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수입자에게 송부한다. Form 28은 '정보제출 요청서(Request for Information)'라고 불리며 통관 과정에서 수입자 등에게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때 사용되는 서류이다. 특히 한·미 FTA 적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시에는 'UKFTA Verification' 등의 문구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자료 목록을 기재하고 있다.

②CBP Form 29(Notice of Action)

원산지검증 결과는 CBP Form 29(Notice of Action)인 '결과통지서'를 통해 통보한다. 만약 초기 제출한 정보가 원산지 입증에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is proposed'에 체크되고 추가자료를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최종결정(has been taken)'에서 원산지를 인정하지 못하면, 그러한 판단의 이유와 근거, 해당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제기할 수 있는 행정구제에 대해 안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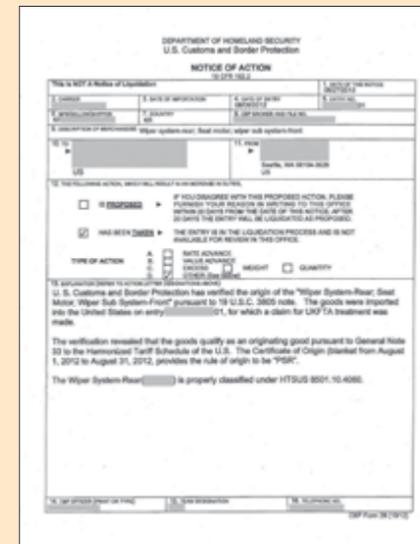
▲CBP Form 28(앞)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관계(특수관계자 여부), 거래와 관련된 별도 비용정보, 거래 계약서 사본, 물품의 기능·용도·구성요소 등에 대한 정보, 견본품 제출 등을 요구하며, 질문의 박스에 체크(V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및 관련 자료를 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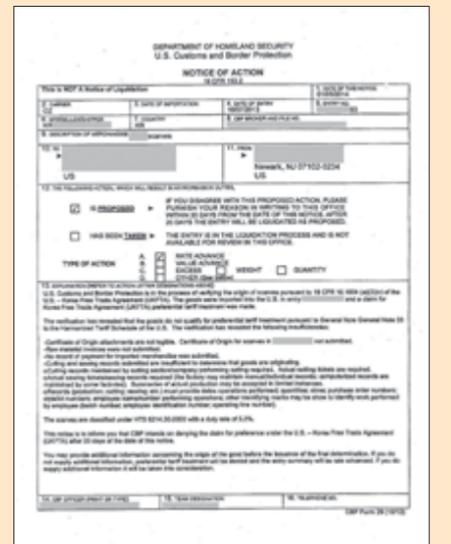
▲CBP Form 28(뒤)

한-미 FTA협정에 따라 특혜관세가 적용된 품목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기 위해 정보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산업, 물품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보통 Flow chart, BOM, 제조공정도 및 기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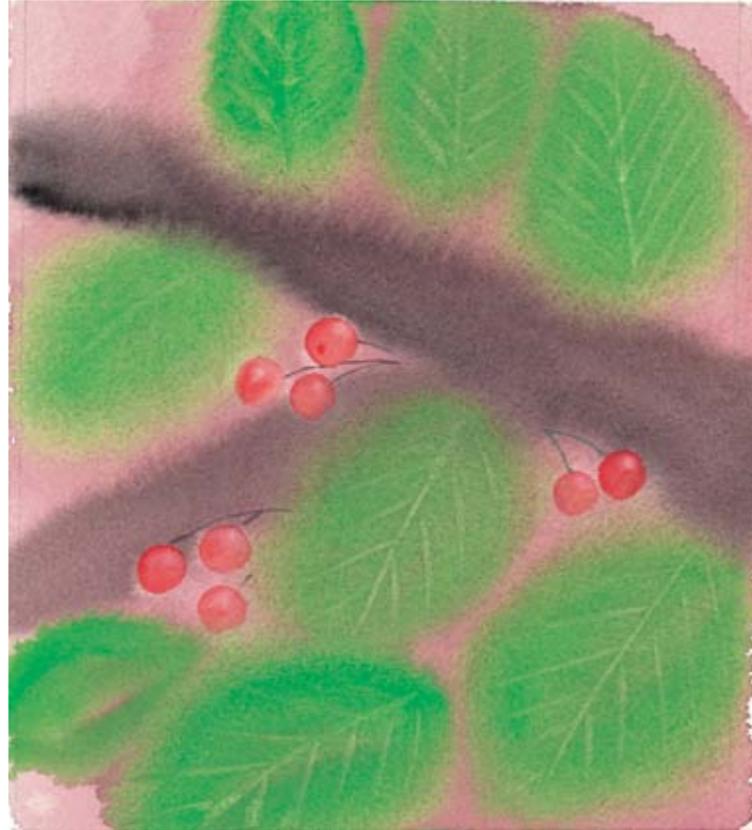
▲CBP Form 29(인정)

'예비결정(is proposed)'인지 '최종결정(has been taken)'인지 여부와 함께 어떤 조치가 있는지 표기되어 있다. 위 경우 'properly classified'라고 쓰여 있어, 원산지 입증이 제대로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CBP Form 29(불인정)

위 경우 '예비결정(is proposed)'으로서, 원산지를 인정받지 못한 '기본세율(Rate Advance)'이 적용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아래 부분에서는 원산지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와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앵두

그녀가 스쿠터를 타고 왔네
빨간 화이바를 쓰고 왔네

그녀의 스쿠터 소리는 부릉부릉 조르는 것 같고,
투정을 부리는 것 같고
흙먼지를 일구는 저 길을 쉿, 하고 가로질러 왔네
가랑이를 오므리고
발판에 단화를 신은 두 발을 가지런히 올려놓고
허리를 곧추세우고,
기린의 귀처럼 붙어 있는 백미러로
지나간 풍경을 멀리 훑쳐보며
간간, 부레끼를 밟으며

그녀가 풀 많은 내 마당에 스쿠터를 타고 왔네
둥글고 빨간 화이바를 쓰고 왔네

-고영민

그(녀)가 내게 왔다

입춘(立春)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다. 대문이나 기둥에 새로운 한 해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는 글귀를 써서 붙이는데, 이를 입춘방(立春榜) 혹은 입춘첩(入春帖)이라고 한다. 은퇴한 선생님이 그 입춘방과 함께, '다시 봄이 오고 있다'는 말로 시작하는 짧은 편지를 보내주셨다. 그 글귀를 받고는 잠시 마음이 설렜다.

이유인즉슨 이렇다. '봄이 온다'는 말은 사무적이다. 그 말에는 봄을 기다리는 이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 '또 봄이 오고 있다'는 말은 어쩐지 힘겨워 보인다. 이 말에는 봄을 기다리는 이의 마음은 담겨 있으며, 그 마음이 설렘과는 다른 걱정이나 근심에 가까워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다시 봄이 오고 있다'는 말은 설렌다. 오고 있는 생명의 봄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뭔가를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다는 기쁨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잠깐 그 글귀를 앞에 두고서 마음이 설레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치 사랑이 처음 찾아왔던 그때처럼 말이다. 흔히 인생의 봄을 청춘(靑春)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 무렵에 이성(性)에 대한 순수한 사랑의 감정이 생긴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세상에 관한 모든 지식과 얽은 관찰을 통해 습득된다.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보고, 몸으로 느끼는 것들. 이런 느낌과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계를 알게 된다. 다시 봄이 오고 있다는 사실도, 저만치 오고 있는 사랑도 다르지 않다. 그런데 봄이야 꽃이 피고 싹이 돋으면 금세 알 수 있지만, 사랑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봄은 여기저기 핀 꽃의 색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사랑의 느낌이란 도대체 어떻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봄이 되면 강아지도 꼬리를 흔든다는데, 사랑이 처음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봄이 오고 머잖아 앵두나무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어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랑이라는 감정도 그렇게 찾아온다고 시인 고영민은 말한다.

'둥글고 빨간 화이바'를 쓰고 온 그녀는 시의 제목인 앵두이며, 그 앵두는 한 남자의 마음을 빼앗은 사랑이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한바탕 바람을 일으키며 그녀-사랑은 온다. 그녀-사랑이 오기 전까지 한 남자는 그야말로 보잘 것없는 풀밭에 불과했다. 남자의 마음-마당엔 돌보지 않아 아무렇게 자란 풀들과 앙상한 나무 몇 그루가 심겨져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녀-사랑이 오고, 머잖아 그 앙상한 마음-나무에 꽃이 피고 잎이 돋을 것이다. 그러므로 풀만 무성했던 한 남자의 마음-마당에 그녀-사랑이 찾아오는 순간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부릉부릉 소리를 내는 스쿠터처럼, 사랑을 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시도 때도 없이 요동친다. 불수의근인 심장이 저절로 뛰는 것처럼, 사랑의 감정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숨길 수 없는 감정 때문에 저만치 그

녀-사랑이 다가오기만 해도 심장박동수가 높아지고 손에는 땀이 난다. 안절부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이에 딱하니 그녀-사랑은 우리 앞에 와있다. "둥글고 빨간 화이바"를 쓴 그녀-사랑은 앵두처럼 예쁘다. 새콤달콤한 앵두의 것처럼 사랑이 한 남자에게 찾아온 것이다. 그렇게 그녀-사랑은 순식간에 한 남자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린다.

이 사랑의 감정이 만드는 사건을 흔히 연애라고 부른다. 누구나 사랑을 하지만 모두가 연애를 잘 하는 건 아니다. 연애는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 절대 조바심을 내서는 안 된다. 그녀도 멀리 풍경을 보면서, 때때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오고 있지 않은가. 사랑에 정도(正道)가 없다는 표현은 막 사랑을 시작한 이에게는 참으로 무책임한 말이지만 틀린 말이 아니다. 느낌과 감각을 통해 이 세계를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느낌과 감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

그녀-사랑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떨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 말은 자신의 느낌과 감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자신을 알게 된다는 뜻이다. 밤새워 그녀-사랑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묻고 되묻는다. 때로는 형편없어 보이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오직 자신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소중한 발견임에 틀림없다. 사랑을 하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봄이 오고 있다. 다시 그(녀)가 내게 왔다.☺



여태천 교수는요, 2000년 '문학사상'으로 등단. 시집 '저렇게 오랜지는 익어 가고' '스윙' '국외자들'과 비평서 '김수영의 시와 언어' '미적 근대와 언어의 형식'이 있다. 제27회 김수영문학상을 수상했다. 현재 동덕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뮤지컬 '해를 품은 달' 원미술 음악감독 “창작의 과정은 처절, 생각의 구조까지 바뀌어야 해요.”



심나현 감독님, 정말 만나고 싶었습니다.

원미술 어머, 반가워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했어요.

심나현 인터뷰 해보긴 처음인데, 인터뷰를 시작해도 될까요? 뮤지컬에서의 음악감독의 역할과 비중이 궁금합니다.

원미술 뮤지컬은 음악의 힘으로 드라마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만큼 일반적인 연극보다는 음악의 비중이 크지요. 음악감독의 역할은 제작 초기단계에서부터 음악의 콘셉트를 설정하고, 공연의 텍스트를 정리하고, 연주자 등 음악팀을 조직하고, 배우 오디션에도 참여하고요, 보컬 연습 및 연주 연습을 담당합니다. 실제 공연 때는 악기 연주자들 앞에서 지휘를 맡습니다.

심나현 음악감독의 역할이 정말 많은데, 연출을 맡은 총감독과의 역할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감독과 부딪히기도 할 것 같은데요.

원미술 연출 컨셉트를 처음부터 다 공유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감독과의 호흡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운이 좋아서 그런지 지금까지 감독과 부딪힌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나현 다행이네요. 그럼 어떻게 해서 지금의 일을 하시게 된 것인지 궁금해요.

원미술 음, 그간의 히스토리 말이죠? 중고등학교 때 춤추고 노래하는 걸 좋아했는데, 대학에서는 부모님의 권유에 따라 클래식을 전공했어요.

심나현 부모님의 권유라면, 혹시 부모님들도



원미술 음악감독(1977년생)은 서울대 작곡과 출신으로 1999년부터 '록키호러쇼' '하드락 카페2' '노틀담의 곰추' '그리스' '지킬 앤 하이드' '한여름밤의 꿈' '행릿' '몬테크리스토' 등 15편의 뮤지컬 음악을 맡았다. 현재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해를 품은 달'이 예술의전당에서 공연 중(2월 23일까지)으로, 뮤지컬 '해를 품은 달'은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음악과 군무, 무대를 통해 대한민국 고유의 정서를 현대적인 감성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음악 쪽 일을 하셨나요?

원미술 전혀요. 아빠·엄마·오빠 모두 수학 선생님이예요. 아빠와 오빠는 심지어 대학 동문이기도 하죠. 이런 집안에서 차마 탄따라를 할 수 없어서 '서울대' '클래식 전공'이라는 걸로 허락을 얻을 수 있었죠. 그런데 클래식을 전공한 것에 대해 지금은 부모님에게 감사해요. 뮤지컬 음악이라는 게 장르에 한계가 없어 폭 넓게 음악을 해야 하는 것인데, 좋아하지 않았을 법한 클래식을 전공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음악의 뿌리가 있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클래식만 하느라 몸이 근질거렸는지, 2학년 1학기를 마치고선 대중음악 작업을 시작했어요. 작곡도 좀 하고 지금은 유명인이 된 가수의 앨범 편곡도 좀 하고요. 그러다가 뮤지컬 오디션 광고를 본 거예요. 지금은 한 해 200개의 뮤지컬이 공연되지만, 당시는 한 해 20개 정도였고, 뮤지컬 전문 음악감독도 1~2명이던 때였죠. 광고를 보고 찾아가 당돌하게 '내가 음악을 해 보겠다고' 얘기했죠. 그렇게 음악 작업을 하던 중, 저에게 합창을 지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했죠. 그러던 중 음악감독님이 갑자기 배역을 맡아 캐스팅이 되어 버렸어요. 그 때는 음악을 좀 하면 배우도 하고 음악감독도 맡고 하던 때였거든요. 갑작스런 음악감독의 부재로 음악감독 역할을 처음 맡게 된 거죠.

심나현 처음엔 좀 당황하셨겠네요.

원미술 뭘 모르던 때라, 지금도 잘 모르지만, 닥치는 대로 공부했죠. 스터디그룹을 만들어서도 하고, 이것저것 뮤지컬 보고 자료 찾고, 열정이 충만할 때잖아요. 그렇게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심나현 창작 뮤지컬의 경우 직접 작곡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창조적인 영감을 얻으시나요?

원미술 처절하죠. '영감(靈感)'이란 게 생각에 골몰해서 하나를 만들고 또 새로운 걸 만들 수가 없어요. 일단 새로운 음악이 나오려면 생각의 구조가 바뀌어야 하고, 새로운 자극과 정리가 필요합니다. 음악을 듣고, 미술을 보기도 하고, 어딘가를 가기도 하죠. 책을 보다가 새로운 캐릭터에 대한 자극을 받기도 하구요. 예를 들어 '해를 품은 달' 작업 때 '해금 연주를 변형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해금 연주를 옛날 작품, 요즘 작품, 국내 연주자, 해외 연주자 등 닥치는 대로 찾아서 듣고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 가능하구나'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고 생

각해 보는 거지요. '영감'이 오실 때마다 조금씩 컴퓨터에 깔아 놓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깔아놓다 보면 밀그림이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구체화되면 마지막에 필요한 음악을 한꺼번에 완성할 수 있게 되죠.

심나현 음악 듣는 것도 일이네요.

원미술 그래서 전 운전할 때 음악을 안 들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일을 하시는 다른 분들도 다 그렇더라고요. 남들은 음악을 듣는 것이 휴식이지만, 저희는 안 듣는 것이 휴식이죠.

심나현 몇 년 전에 했던 작품을 다시 할 때는 배우, 스태프가 바뀌는 것 외에 어떤 다른 점이 있나요?

원미술 예전에 제가 했던 작품을 다시 하게 되면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예전의 나는 눈앞의 것을 쟁취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 일을 평생 할 수 있을까'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성장한 것이 느껴지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콜 공연이라고 해도 지겹지 않죠.

심나현 지금까지 한 작품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은 뭐예요?

원미술 지금 하고 있는 작품이 가장 애착이 가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작품을 거듭할 때마다 저번보다는 더 성장하려고 노력해요. 바로 지금 하는 작품이 '가장 성장한 내가 하는 작업'이 되니까요.

심나현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뮤지컬 브로셔를 꺼내며) 여기 사진 좀 받아도 될까요?

원미술 네, 물론이죠.

심나현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미술 저도요. 눈도 내리는데, 조심히 들어가세요.☺



'함께하는 FTA' 독자 심나현 씨(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 09학번)는 뮤지컬 매니아다. 고등학교 때 처음 본 뮤지컬의 감동을 늘 품고 산다는 심 씨가 '해를 품은 달'이 공연되고 있는 '예술의전당'에서 원미술 음악감독을 만났다. 원 감독은 시종일관 유쾌하게 작품과 인생에 대해 얘기를 들려줬다.



초콜릿의 요람, 제주초콜릿박물관의 특별한 탄생

30년 초콜릿 사랑, 제주에서 꽃피다

일 년 중 초콜릿이 가장 바쁠 때가 2월이다. 초콜릿을 빙자해 은근슬쩍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인 발렌타인 데이 때문이다. 입 안에서 사르르 녹는 초콜릿에 사람의 마음도 스르르 녹일 수 있는 마법이 있는 것일까. 로맨틱할 수밖에 없는 초콜릿의 매력에 빠져 평생을 초콜릿과 함께 한 이가 있다. 바로 제주초콜릿박물관의 한예석 관장이다.



한예석 관장은 30년 넘는 세월 동안 초콜릿에 빠져 있었다. 초콜릿을 배우고 익힐 수 있다면 전 세계 어디든 달려갔다. 이렇게 차근차근 30년을 준비해 지금의 제주초콜릿박물관의 모습을 만들 수 있었다.



1 국내 최초로 재배에 성공한 카카오나무. 5년째 열매를 맺고 있다. 한예석 관장은 지구온난화로 한국에서도 카카오를 재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2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명물 트롤리(trolley)를 직접 수입해 바퀴를 달아 개조했다. 지금도 휴가 성수기에는 중문까지 운행한다. 3 박물관 내의 유물들은 한 관장 부부가 30년 동안 전 세계를 돌며 모아 놓은 것들이다.

바다 하나를 건넌 것 뿐인데, 제주도는 별천지다. 화산활동으로 우뚝 솟은 한라산은 제주 어디서든 보이고, 작은 분화구인 오름 수백 개가 곳곳에 펼쳐져 있다. 바닷가는 온통 검은색 현무암 천지다. 이 현무암들이 마을 곳곳의 담벼락을 있고 있어, 제주는 어딜 가든 색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마라도 가는 배가 드나드는 모슬포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조금 올라가다 셋길로 빠지면 공작 선사시대 유적 같은 기괴한 건물들이 터 하니 나타난다.

한 때 주인 없는 건물로 폐허처럼 있던 방치됐던 이 곳은 지금 소박하면서도 아늑해 보이는 제주초콜릿박물관으로 변신해 있다. 제주 특유의 송이석으로 만들어진 유럽 고성 같은 박물관은, 16년 전 한예석 제주초콜릿박물관 관장의 눈길을 사로잡았었다.

1982년, 세계를 돌며 '초콜릿 유랑' 시작

지금부터 44년 전인 1970년, 한 관장은 씨티은행에 입사해 전산관리 담당자가 된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불과 17년째 되던 당시는 '컴퓨터'라는 개념조차 생소하던 때였다. 따라서 전산화를 도입하려면 해외에서 장비와 노하우를 도입해야 했고, 한 관장은 당시로서는 쉽지 않은 해외 출장 기회를 통해 외국의 문물을 접하게 됐다. 한 관장의 남편인 주진윤 씨도 1973년 대우실업(현 대우인터내셔널) 근무 당시 해외 출장이 잦았다. 자연스럽게 부부의 관심사는

세계로 향했는데, 한 관장은 유독 초콜릿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 지금의 젊은 여성들이 커피에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달콤한 초콜릿의 매력에 빠진 것이다. 내친 김에 벨기에·독일·스위스·영국 등 초콜릿 문화가 발달한 곳에서 초콜릿 강습도 들었다. 구경꾼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초콜릿 문화의 창조자가 되고 싶었던 것이다.

이렇게 초콜릿 유랑이 시작됐다. 1982년부터다. 초콜릿에 관해서라면 세계 어디든 달려가 보고 배워야 했다. 그리고, 먼 훗날을 위해 초콜릿 유물과 각 나라의 초콜릿 제작 도구 등을 사 모았다. 떡방아 찧듯 카카오 열매를 찧어 초콜릿을 만들던 고대 방식을 재현한 도구들을 보면 한 관장의 노력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모은 물품들이 지금 제주초콜릿박물관을 채우고 있다. 박물관 앞에 서 있는 이국적인 전차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명물 트롤리(trolley)를 직접 수입해 개조한 것이다. 휴가철 등 성수기에는 근처 산방산 및 중문 사이를 오가며 해안의 멋진 절경을 구경할 수 있다.

국내 최초로 카카오열매 재배에 성공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온 '초콜릿 세상'의 내용물들을 담을 그릇이 될 박물관 건물을 마주한 것은 1998년이다. 1999년 건물을 매입해 2002년 5월 마침내 아시아 최초의 박물관이 탄생했다. 2010년 2층을, 2013년에 지하를 추가로 오

른해 지금의 규모를 갖추게 됐다. 기업형이 아닌 공장 방식으로 수제 초콜릿을 만드는 것처럼 건물 공사도 제주에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진행하다 보니 전체를 완성하는 데 몇 년의 시간이 걸렸다. 지금의 박물관에서 상업적인 느낌이 나지 않고 아늑하고 소박하게 느껴지는 이유다.

마당 한 칸의 자그마한 온실에서는 카카오 나무가 자라고 있다.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바로 그 카카오다. 초콜릿의 모든 것을 이곳에 담겠다는 일념을 보여주는 듯하다. 그러나 남북회담 사이에서 자라는 초콜릿이 제주에서 쉽게 자라지는 않았다. 5년 전 첫 시도한 나무들은 모두 죽어 버려서, 다시 기르기 시작한 나무들이다. 시행착오를 거친 만큼 이번에는 좀 더 오래 길러볼 계획이다. "지구 온난화로 기후가 달라지면 카카오를 제주에서도 길러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카카오나무들은 매년 열매를 맺고 있다. 한 관장의 말처럼 한국에서 최초로 탄생한 이 카카오나무가 한국의 농업을 이끌 다크호스가 될 지도 모를 일이다.

제주초콜릿박물관 방문 팁 하나. 박물관에서 반드시 코코아음료를 마셔보기 바란다. 설탕과 유지방을 잔뜩 넣은 대량생산 코코아가 아니라, 달지 않으면서도 진한 여운이 느껴지는 진짜 카카오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TPP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협의 실시 총 12개국과 진행...3월 초 마무리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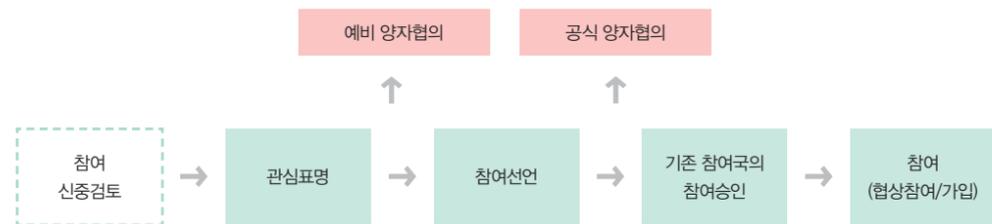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는 TPP 관심표명(2013년 11월 29일) 이후 우리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가능성 모색을 위한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 중이다. 1월에 이어 2월에는 6개국과의 예비 양자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2005년 P4(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로 시작된 TPP 협상은 2008년 미국·호주·페루, 2010년 베트남·말레이시아, 2012년 멕시코·캐나다가 참여했고, 2013년 일본이 추가로 참여해 현재 12개국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TPP 협상 참여국의 GDP를 합하면 전 세계의 약 40% 가량을 차지하는 거대 지역무역협정이다. '예비 양자협의'는 TPP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기존 참여국들과 참여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이다.

TPP 예비 양자협의 일정

국가	날짜	장소	우리측 수석대표
미국	1월 13일(월)	워싱턴 D.C.	최경림 통상차관보
멕시코	1월 15일(수)	멕시코시티	
칠레	1월 17일(금)	산티아고	
페루	1월 21일(화)	리마	우태희 통상교섭실장
말레이시아	1월 21일(화)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1월 23일(목)	싱가포르	최경림 통상차관보
캐나다	2월 7일(금)	오타와	
호주	2월 11일(화)	캔버라	우태희 통상교섭실장
브루나이	2월 13일(목)	반다르 세리 베가완	
뉴질랜드	2월 14일(금)	서울	
일본, 베트남	2월말~3월 초 개최하는 방향으로 세부일정 조율중		

TPP 참여 대외 절차



제1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20여 개 관계부처 기관장 참석해 소통과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3일(월)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농식축산식품부 차관과 중소기업청, 관세청장 등 20여개 관계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통상현안에 대한 관계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를 주재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한·중 FTA 협상, TPP 참여, 쌀 관세화 문제 등에 있어 국익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하여 아태지역 경제통합의 핵심축(linchpin)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후 2014년 통상정책 추진계획, 2014년 신흥국 통상협력 및 기업진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FTA 컨설팅 성공사례집 발간

FTA 120% 활용으로 수출물고 튼다



한국무역협회 FTA무역종합지원센터(센터장 안현호 무역협회 부회장)는 2012년 2월 이후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한 700여 건의 컨설팅 사례 중 주요 사례를 정리한 'FTA1380, 무엇이든 해결해드립니다'를 1월 8일 발간했다. 성공 사례별로 △성공 키 포인트 △제품 소개 △관련 용어와 해설 △적용된 규정 등을 통해 협정별·업종별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하고 있어 개별 기업들의 FTA 활용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FTA센터 허덕진 실장은 "기업 실무자들이 FTA 활용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 과정 설명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책자는 무료로 배포되며 'FTA 콜센터 1380(국번 없이 1380)'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한국무역협회 전자도서관(ebook.kita.net) 및 FTA 센터 홈페이지(fta1380.or.kr), 교보문고에서도 무료로 e-북 열람이 가능하다.

서울대학교 FTA 실무전문가 과정 3기 모집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특강으로 진행...3월 14일 마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은 2014년도 1학기(3기) FTA 실무전문가 과정(FLP: FTA Leadership Program) 3기를 모집한다. 본 과정은 FTA 실무 전문고급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 하에 실시하고 있다.

본 과정에서는 FTA와 관련된 기초적 실무에서부터 비즈니스 전략까지 FTA에 관한 다양한 이슈를 각 분야 최고 권위의 전문가들의 특강으로 진행되며, 실무와 사례를 유기적으로 접합해 학습효과를 배가하고 있다.

FTA 실무전문가 과정 3기 모집 요강

- 모집인원** 40명 내외
- 전형방법** 서류전형(직무 적합도 및 교육 효과성에 대한 종합 판단)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3월(3월 14일 원서접수 마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원서 다운로드
- 문의** 02)880-6877 또는 fta.snugsis@gmail.com
-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홈페이지(http://gsis.snu.ac.kr) 참조

CEPA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약자. 협정당사국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상품·서비스 교역의 자유화 뿐만 아니라 투자·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의 협정을 말한다. 시장개방보다는 경제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표현만 다를 뿐 교역 자유화의 추진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칠레 등과 타결한 자유무역협정(FTA)과 사실상 동일하다. FTA에 대한 국민적 민감성 때문에 CEPA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9월 25일 한·인도 CEPA 협상을 타결, 2009년 8월 7일 양국 간 서명을 마쳐, 2010년 1월 1일부터 발효됐다. 또한 아세안 회원국인 인도네시아와는 한·아세안 FTA와 별개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인 CEPA 협상을 2012년 7월부터 시작했다. 2013년 11월 발리에서 제6차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이 이뤄졌다.

EPA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약자로, 관세 철폐를 포함한 경제협력을 목표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의 한 형태로서 FTA와 그 개념이 크게 다르지 않다. 주로 일본이 상품, 서비스 중심의 FTA보다 투자, 인적교류 확대 등을 강조한 EPA 추진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는 관세율이 낮아 상품자유화 중심의 협상을 추진하기 어려운 일본 내 사정(상대측에게 관세 인하의 급부를 제공키 어려움)을 고려한 포석도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2002년 싱가포르와 EPA 발효 이후, 멕시코·아세안·스위스·인도·페루 등과 EPA를 발효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칠레와는 2007년 FTA를 발효했다.



독자의 소리 <함께하는 FTA>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나라가 FTA 후발주자였다는 사실을 잘 몰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10년의 역사만으로도 FTA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획기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한편 FTA 체결국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 규정을 적용해 기업이 FTA를 활용하는데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다음호에는 FTA 체결국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기업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다루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미야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FTA는 어렵고 복잡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제 나이 60에 '함께하는 FTA'를 읽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FTA에 대해 쉽게 깨우쳐가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FTA로 인한 농업 피해를 많이 우려했는데, 1월 호의 "배, 한민족의 열을 담은 과일"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그런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 한 해, FTA로 인한 도전을 우리 국민들이 잘 극복해가는 모습을 많이 읽을 수 있길 바랍니다.

김희용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함께하는 FTA' 신년호를 받아두고 기사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니 FTA와 우리 경제에 관련된 걱정을 한시름 놓는 시원한 기분이 듭니다. 다양한 문화 코너가 조금은 딱딱했던 '함께하는 FTA'에 윤희유 같은 역할을 해 주네요. 새롭게 탈바꿈한 '함께하는 FTA'처럼 2014년 갑오년 새해는 청마처럼 세계 무역시장을 질주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합니다.

조향원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IBK기업은행·신한은행·우체국 등에서 '함께하는 FTA'를 보고, 사업하는 자녀들과 친지들에게 적극 권장하는 열성 독자입니다. 이번 호 '한국의 맛'을 보고 배가 과일 수출

1위 품목이라는 사실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FTA가 체결되면 와인이나 열대과일을 싸게 먹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졌었는데, 앞으로 국내산이 없는 농산물의 수입 실태를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창중 서울 노원구 동일로

평소 APTA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FTA가 아닌데도 기업 실무자인 독자들의 입장에서 '함께하는 FTA'에 APTA 내용을 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내용까지 다운로드받아 세부내용도 공부했습니다. 신년호부터는 문화 코너가 더욱 풍성해졌는데, 기회가 된다면 세계인에게 우리나라를 제대로 알리고 세계와 친구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국제교류재단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다루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휘곤 울산시 북구 신천로



소치동계올림픽 파이팅!
국민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 ◆ 대회기간 : 2014.2.7(금)~23(일) 17일간
- ◆ 개최종목 : 7종목, 98개 세부종목



FTA 활용,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전국 어디서나 FTA 콜센터 1 3 8 0

FTA 콜센터 1380에서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 능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기관 컨설팅, 정보제공, 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정보제공

FTA 활용정보 통합제공
해외 전문가 초청 FTA 활용 비즈니스전략 정보 제공



▶ 애로해소

FTA 활용 애로사항 해소 및 정책 건의 / 협정문 및 이행 관련법령 유권해석 지원
FTA 원산지 증명서 증명서류의 간소화 및 표준화



▶ 교육 및 홍보

FTA 실무교육 제공 / 대기업 협력업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회사별 원산지관리시스템 Edu-suiting(교육+컨설팅)



▶ 컨설팅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 HS 품목분류, 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 관련 컨설팅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사후검증 대응 컨설팅